

설국 속에서 세계를 보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11



EAI
EAST ASIA INSTITUTE

EAI 사랑방이란



미래 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년에 시작한 EAI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사랑방 23기 명단 〉

고하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외관계 전공 석사 졸업

이원주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대학원 석사 재학

이해린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사 졸업

정명현 서울대학교 외교학 전공 석사 재학

〈 사랑방 23기 답사 일정표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10:20	도착
14:00 - 15:00	점심식사(Nagasaki Kou Shinchu)
15:30 - 16:30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 원폭기념공원 * 입장료 ¥200
17:00 - 18:00	글로버 가든 * 입장료 ¥620 * 야간개장 시기는 홈페이지 참고
18:30 - 19:00	데지마 * 입장료 ¥520
19:30 - 20:30	저녁식사(Lao Lee 総本店)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09:00 - 10:00 일본 26성인 기념관
* 입장료 ¥520
- 11:30 - 12:30 해상자위대 사세보자료관
* 입장료 없음
- 13:00 - 14:00 점심식사(갤러리아리타)
- 14:10 - 14:50 규슈 도자기문화관
* 입장료 없음
- 16:00 - 17:30 한일교류박물관 / 나고야성터
* 입장료 없음
- 19:30 - 21:00 저녁식사(우미노미치)

[2025년 1월 9일 목요일]

- 10:00 - 11:00 일청강화기념관
* 입장료 없음
- 12:00 - 13:00 점심식사(카레혼포 모지코레트로점)
* 이데미츠 미술관이 휴관인 관계로
식사 후 카페 이용
- 15:30 - 16:30 규슈 국립박물관
* 입장료: 일반인 ¥700, 대학생 ¥350,
만 70세 이상 무료
- 20:35 귀국

목차

1. 지속과 변화의 복핵 문제, 북한과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5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 나가사키 평화 공원	고하은
2. 16세기 포르투갈 국제정치와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 임진왜란에 대한 관점 형성을 바탕으로	29
데지마, 일본 26성인 기념관, 나고야성 박물관	이원주
3. 말을 통해 미래를 읽다: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과 중국의 대응	77
규슈 국립박물관	이해린
4. 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국제정치적 동학: 미국의 관점에서 본 일본과 소련	105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정명현
〈부록〉 국가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는가? 핵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상이한 인식을 중심으로	141
(미국) 앨버커키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 (일본)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 나가사키 평화 공원	고하은
〈부록〉 사랑방 23기 일본 규슈 답사 단체사진	156
〈부록〉 다음 기수를 위한 사랑방 23기의 답사 준비 꿀팁	166

지속과 변화의 북핵 문제, 북한과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 나가사키 평화 공원

고하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외관계 전공 석사 졸업

I. 들어가며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현직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를 이기고 최종 당선됨에 따라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1기(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기간 동안 싱가포르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과 하노이 정상회담(2019년 2월 27일-28일) 등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2기(2025년 1월 20일-2029년 1월 20일) 기간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잘 알고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라며 “내가 아마도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로이터 통신은 2024년 11월 27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4년 12월 14일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특임대사로 지명했는데,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릭(리처드)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일할 것”이며 “그레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8년간 일하면서 북한과도 일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 2기에서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은 2024년 12월 29일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4년 12월 23일-27일)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미일한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불력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략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1월 20일 취임식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대미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 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북핵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1차 원전 자료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로동신문, 조

선중앙통신에서 발표된 공식 자료들과 정부성명을 살펴보면, 특히 북핵과 관련하여 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통해 발표된 「핵무력정책법」 2개 문서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공식 사이트와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등의 공식 자료를 분석한다. 셋째, 앞서 살펴본 북한과 미국의 원전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싱가포르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과 하노이 정상회담(2019년 2월 27일-28일) 두 차례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5년 트럼프 2기와 관련하여 북핵 문제 및 북미 관계에 대한 참조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Ⅱ. 북한의 NPT 탈퇴와 핵 무력 완성 선포

북핵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으로 현존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on Proliferation Treaty, NPT)¹⁾에 가입한 후, 시간을 끌다가 1992년 1

1) NPT는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으로 핵무기의 확산과 핵전쟁 위협의 증대를 우려하여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조약이며 인류 최초의 다자간 조약이다. NPT는 1968년 7월 1일 서명을 시작해 1970년 3월 5일부터 발효되었고, 전문과 본문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NPT는 1967년을 기준으로 기존 핵무기 보유 조약 당사국만이 핵을 소유할 수 있고 핵무기 비보유 조약 당사국은 핵을 갖지 못한다는 ‘수평적 핵확산 방지’를 핵심으로 한다.

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및 IAEA의 사찰 수용을 발표한 후, 1992년 1월 30일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은 1992년 5월 4일 IAEA에 7개의 핵시설과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최초 보고서(Initial Report)를 제출했으나, IAEA가 1992년 5월 25일부터 1993년 2월 6일의 기간 동안 북한에 임시 핵사찰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불일치(Significant Discrepancy)를 발견했다.

IAEA는 1992년 12월 22일과 1993년 2월 9일 북한에게 2개의 미신고 시설의 방문 허용을 요청했으나, 북한은 이를 모두 거부한 채 1993년 2월 21일자 로동신문에서 특별사찰을 강요하면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3년 2월 25일 IAEA 정기이사회는 북한의 특별사찰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은 1993년 3월 8일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 정부성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의 NPT 탈퇴 발표에 따라 IAEA 특별이사회는 1993년 3월 18일 대북 결의안과 3월 31일 북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UN 안보리 보고 결의를 채택했으며, 4월 8일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핵 문제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5월 11일에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NPT 탈퇴 철회 촉구 결의안(825호)을 채택했다. 또한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후에는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진행함에 따라 1993년 6월 11일자로 NPT 탈퇴를 잠정 유보하였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핵불사용 및 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등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2차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후 북한과 미국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가 결렬되었으며,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제 1차 NPT 탈퇴 선언 이후에 2003년 1월 10일 제2차 NPT 탈퇴 선언을 한 후 2025년도 현재까지 NPT 체제에 복귀하지 않았다.

1. 1993년 3월 12일자 북한 정부성명 : 1차 NPT 탈퇴 선언

북한은 1993년 3월 12일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 조치를 선포한다”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NPT 탈퇴를 선언했다. 정부성명의 주요 내용은 ▲타임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북한 특별사찰 결의, ▲자주권 침해 및 내정 간섭, ▲핵문제의 국제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집단제재 및 압력, ▲미국의 반공화국책동, ▲대북 군사적 위협, 정치·사상적 공세, 봉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1〉 북한 제1차 NPT 탈퇴 정부성명



첫째,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후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나,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IAEA의 북한 군사기지 특별사찰이 제시되는 것에 따라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음을 주장하며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둘째, 북한은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그대로 남겨두고 보다 현대적인 핵무기와 핵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북한에게 핵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결의의 부당한 처사를 배격할 것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북한은 NPT 탈퇴와 관련하여 IAEA가 북한의 군사 대상을 특별 사찰하는 결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핵문제를 국제화하고 집단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에 합세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고 미국의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기지를 개방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영토의 안정과 자주권을 존중하며 핵위협을 중지한다는 측면에서 NPT의 이념과 목적에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다넷째,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이 NPT의 공정성과 중립의 원칙에서 이탈하여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북한이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해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후, IAEA가 일본과 남한의 핵무장화 책동에 대해서는 묵인한 채 오로지 북한만의 핵무기 개발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NPT에 가입한 것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비핵국가인 북한의 자주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것에 악용되는 비정상적 사태에서 NPT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으로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탈퇴를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북한은 NPT에 제시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제시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북한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촉구했다.

2. 2003년 1월 10일자 북한 정부성명 : 2차 NPT 탈퇴 선언

북한은 2003년 1월 10일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2차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1993년 3월 12일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 조치를 선포한다”의 1차 NPT 탈퇴 선언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성명의 주요 내용은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IAEA의 대북결의, ▲자주권 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북미기본합의문 파기 등을 담고 있다.

〈그림 2〉 북한 제2차 NPT 탈퇴 정부성명



첫째, 북한은 2002년 11월 29일과 2003년 1월 6일에 발표된 IAEA의 대북결의 채택을 근거 삼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인해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서 NPT와 북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한 미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한에게만 무장 해제 요구를 하는 것은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IAEA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북한은 IAEA의 결의는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 행위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부쉬 행정부가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미국이 북미합의문을 위반하고 북한의 핵 의혹을 근거로 중유 제공을 중단하고,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한 채 북한에 대해 봉쇄 및 응징하는 것을 북한에 대한 압살책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셋째, 북한은 1993년 3월에 1차 NPT 탈퇴를 선포한 것은 북한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과 IAEA의 불공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국제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반도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서 2차 NPT 탈퇴 선언은 미국의 대북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IAEA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북미기본합의문을 위배하고 IAEA를 통한 결의를 진행한 것을 비판했으며,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IAEA의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NPT 3조는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이행의 검증을 위한 전속적 목적으로 IAEA의 규정 및 안전

조치제도에 따라 협정을 체결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IAEA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하고, 전기의 180일 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협정의 교섭이 동 기탁 일자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동 협정은 교섭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NPT에 명시된 내용과 IAEA와의 규정 모두를 이행하지 않았다.

3.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 및 법제화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정부성명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on 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한 후, 1993년 3월 12일 제1차 NPT 탈퇴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2003년 1월 10일 제2차 NPT 탈퇴에 대한 정부성명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NPT 체제에 복귀하지 않았다. 북한의 NPT 탈퇴는 북핵 문제 발발의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북핵”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NPT 탈퇴 정부성명을 발표함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북한 핵실험 현황 : 2022년 국방부 국방백서, 339P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월) 10:36	2009.5.25.(월) 09:54	2013.2.12.(화) 11:57	2016.1.6.(수) 10:30	2016.9.9.(금) 09:30	2017.9.3.(일) 12:29
규모(Mb)	3.9	4.5	4.9	4.8	5.0	5.7
위력(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핵 개발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김정은 시기 공식적인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걸친 핵 개발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겉으로는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련의 도움 하에 북한의 핵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북한에 핵 연구단지를 건설하는 등의 이중적인 핵 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일성은 핵무기 측면에서는 재처리 능력을 건설하고, 무기급 플루토늄을 축적하였으며, 고폭실험을 통해 플루토늄탄 제조 능력을 구비했다.

둘째, 김정일 시기에는 일면 핵 협상, 일면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핵 억제력 가시화 정책을 추진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선군정치를 토대로 핵무기 개발을 지속했으며, 북미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의 합의문을 위반하거나 그 합의의 빈틈을 공략하여 2006년과 2009년 2회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무기 개발을 성공시켰으며, 중거리 미사일을 완성하여 김정은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었다.

셋째, 김정은 시기에는 김정일이 발전시킨 핵 능력을 토대로 핵무기를 소량화, 경량화, 다중화하였으며,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5년여간 4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거쳐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수소탄을 완성시키고, 2017년 11월 29일 사거리 12,000km 내외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화성 15형 발사 직후 북한의 국가 핵 무력 완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고,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핵 무력을 국가 방위와

자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표2〉 북한의 핵 개발 주요일지 : 2024년 통일부 북한 이해, 117P

1985.12.12.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1991.12.31.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3.3.12.	NPT 탈퇴 선언
1994.10.21.	미북 간 「제네바 합의」 체결
1994.11.1.	핵 활동 동결 선언
19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2002.10.3.	캘리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2002.12.12.	핵 동결 해제 발표
2003.8.27.	제1차 6자회담 개최
2005.2.10.	핵무기고 증대 대책 강구 주장
2005.5.11.	영변 5MWe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 개 인출 완료 발표
2005.9.19.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9.19 공동성명' 채택
2006.10.9.	제1차 핵실험 실시
2007.2.13.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에 대한 「2.13 합의」
2007.7.15.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 및 IAEA 감시하용' 발표
2007.10.3.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등 「10.3 합의」
2008.6.27.	영변 5MWe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9.2.	영변 핵시설 복구작업 개시
2009.5.25.	제2차 핵실험 실시
2009.11.3.	폐연료봉 8천 개 재처리 완료 선언
2013.2.12.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4.2.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2016.1.6.	제4차 핵실험 실시, 조선중앙TV '첫 수소탄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2016.9.9.	제5차 핵실험 실시
2017.9.3.	제6차 핵실험 실시, 조선중앙TV '수소탄두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1)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 공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되자, 북한은 정부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위적 방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했다. 이에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다.

이 법령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자국의 안보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규명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자위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평화적인 목적"이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방어적 무기"로 강조했다. 또한 법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를 "자기방어"와 "민족의 자주적 권리"로 설명하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2022년 「핵무력정책법」 제정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통해 자위적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목표에 따라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하였으며, 이후 김정은 위

원장은 국가 핵 무력 완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 선포 이후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다. 이는 2013년 발표된 법령에서 발전된 내용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핵무력정책법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적 선택임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력이 자기방어적이며, 핵 억지력과 핵 보복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3년의 법령과 다르게 2022년의 핵무력정책법은 핵 무력의 사용 조건과 영구적 유지에 대해 다루고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 법은 핵무기 사용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적대적인 세력에게 핵 공격을 받게될 경우 핵 보복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북한의 핵무력을 "영구적인 방어 수단"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추후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과 2022년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정당화하고 핵무기를 자주권과 방위의 수단으로 강조하며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무력정책법 제정에 대응하여 안보리 제재를 강화하고 핵무기 사용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과 지역 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하며 국제 비확산 NPT 체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앞서 원전 자료에서 살펴본 북한의 정책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Ⅲ. 미국의 북핵에 대한 정책과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1. 2018년 트럼프 정부와 2022년 바이든 정부의 NPR 분석

미국의 핵에 대한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는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가 발표하는 핵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 문서로 북핵과 관련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명시되어 있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4년에 한 번씩 발표되고 있으며, 주로 핵 이슈와 관련된 내용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4개 국가에 대한 분석과 미국의 정책 및 전략을 밝히고 있다. 최근 자료들을 살펴보자면, 첫째, 2018년 트럼프 1기에서 발표되었고, 둘째, 2022년에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되었으며, 추후 2026년 트럼프 정부 2기에서 새로운 NPR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근 북핵 현안 분석과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의 2018년

NPR과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PR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NPR과 2022년 NPR은 공통적으로 모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다루고 있고 북한의 핵 능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발간된 두 개의 보고서는 접근 방식과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우선적으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NPR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보면, 북한을 핵 위협 국가로 명시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다루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핵 억제력 강화와 핵 무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이나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에 있어서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및 대응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으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NPR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보면, 2018년 NPR과 동일하게 북한을 핵 위협 국가로 간주하지만, 핵 비확산에 있어 협상 등의 외교적 해결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핵무기 사용의 조건을 제한하며 핵무기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는데,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되 핵무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있어 외교적 압박과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한국, 일본 등의 동맹국을 핵 우산(nuclear umbrella)을 통해 보호할 것을 명확히 했다.

〈그림 3〉 2018년 트럼프 정부 NPR vs 2022년 바이든 정부 NPR



이러한 중요성을 토대로 2018년 트럼프 1기의 NPR과 2022년 바이든 NPR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공통점에 대해 정리하자면, 첫째, 두 보고서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 위협을 중요한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두 보고서 모두 핵 억제(nuclear deterrence)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해 강력한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 및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핵 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한다고 명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무기가 동맹국 보호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셋째, 두 보고서 모두 북한의 핵 공격이나 대량살상 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았다. 다만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그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제한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두 보고서 모두 국제 핵 비확산의 NPT 체제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P5 국가가 아닌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자면, 첫째,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2018년 트럼프 NPR은 핵무기 사용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고, 북한의 핵 공격이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2022년 바이든 NPR은 핵무기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설정하고, 핵무기 사용의 조건을 더 제한적으로 다루며 북핵 위협에 있어 핵무기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을 취했다. 둘째, 외교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2018년 트럼프 NPR은 군사적 대응과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 강경한 접근을 지지하며, 북한과의 협상은 일종의 불확실한 결과로 간주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반면 2022년 바이든 NPR은 외교적 해결과 핵 비확산을 더 강조하며, 북한과의 협상 재개 및 국제 협력을 통해 북핵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셋째, 핵전력의 현대화의 측면에 있어서 2018년 트럼프 NPR은 북한과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의 현대화와 전술 핵무기 개발을 강조하며 다양한 핵무기 옵션을 제시했다. 반면 2022년 바이든 NPR은 핵전력의 현대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술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적게 강조하며 핵무기 사용의 최소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제시했다. 넷째, 핵 체제에 있어서 2018년 트럼프 NPR은 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2022년 바이든 NPR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며 핵무기의 최소화와 제한적

사용을 추구하는 정책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NPR과 2022년 NPR 보고서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을 살펴보자면, 첫째, 트럼프 정부는 최대 압박 전략을 토대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 및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 등의 북미정상회담 진행 등의 비핵화 협상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 양국 간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둘째,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며 직접 대화보다는 다자간 협력과 국제적 압박을 중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핵 억제 전략을 강조하며 동맹국과의 핵 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일 동맹 강화 추구로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2기를 맞이한 2025년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미국의 북핵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타난 자료들을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북핵과 비핵화,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요소 분석

북핵이 개발된 이후 2018년 사상 최초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에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결국 미국과 북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비핵화 협상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1기(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기간 동안 싱가포르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과 하노이 정상회담(2019년 2월 27일-28일) 등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2기(2025년 1월 20일-2029년 1월 20일) 기간에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북미대화 재개

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었지만 실패한 이유는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신뢰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였다. 첫째,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달랐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할 준비가 있다고 밝혔지만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모호한 입장을 취했으며,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체제 안전과 국제적 위상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비핵화로서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시설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북한의 체제 변화나 안보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과는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핵무기와 대북제재에 대한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북한은 핵폐기 과정에 있어 경제적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실질적인 핵무기 폐기나 핵시설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핵과 제재에 있어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실패하였고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다.

셋째, 북한과 미국의 요구 사항과 기대치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였다.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중시했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안보를 보장하고 제재를 해제하며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핵무기 폐기와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화학무기 등 전반적인 군사적 위협 제거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북한의 인권 문

제 및 체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으며, 특히 체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강하게 반발했다.

넷째, 북한과 미국은 핵시설 및 핵무기의 검증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것인가였는데,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검증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외부의 국제적인 감시와 검증을 거부하거나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에 북미 간의 불신이 심화되었다. 또한 북한은 핵시설의 일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은 그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결론적으로 북미 양국은 핵무기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경우, 이러한 북미 간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V. 나가며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제1차 NPT 탈퇴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2003년 1월 10일 제2차 NPT 탈퇴에 대한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문제는 대략 30년이 지난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핵 개발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김정은 시기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으며, 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

고,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통해 「핵 무력정책법」을 제정하며 법제화하였다.

북핵 문제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군사적 대립의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으며, 대화와 협상의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따라 핵을 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1기(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기간 동안 싱가포르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과 하노이 정상회담(2019년 2월 27일-28일) 등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트럼프 2기(2025년 1월 20일-2029년 1월 20일) 기간에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북미대화 재개 국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미국은 수십 년간의 적대적인 관계와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부족하며, 북핵과 비핵화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지 못했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도 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의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가?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요소는 핵 비핵화의 정의 차이, 제재 해제와 핵 폐기의 상호 관계, 상호 신뢰 부족, 핵시설 검

중의 어려움, 나아가 북한과 미국 양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양국 간의 불신과 견해 차이는 회담 결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미 간의 완전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의 시작 속에서 한국이 북핵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북한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려고 한다.

참고문헌

〈국내 자료〉

국립통일교육원. 2024. 『2024 북한 이해』. 서울 : 통일부.

국방부. 2023. 『2022년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국방부 누리집 : <https://www.mnd.go.kr/mbshome/mbs/mnd/index.jsp>.

외교부 누리집 : <https://www.mofa.go.kr/www/main.do>.

통일부 누리집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북한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 조치를 선포한다”. (1993.03.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2003.01.10.)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2013.04.01.)

「핵무력정책법」. (2022.09.08.)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국외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2018 NUCLEAR POSTURE REVIEW”.

_____. 2022. “2022 NUCLEAR POSTURE REVIEW”.

_____. 2018. “2018 NUCLEAR POSTURE REVIEW Executive Summary Translated (한국어)”.

_____. 2023. “2022 NUCLEAR POSTURE REVIEW Executive Summary Translated (한국어)”.

美 국무부 홈페이지 : <https://www.state.gov/>.
美 국방부 홈페이지 : <https://www.defense.gov/>.
美 백악관 홈페이지 : <https://www.whitehouse.gov/>.

〈기타 참고 자료〉

고하은. 2024. “북한의 대외관계와 핵에 대한 인식 연구 : 6자회담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6세기 포르투갈 국제정치와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 임진왜란에 대한 관점 형성을 바탕으로 데지마, 일본 26성인 기념관, 나고야성 박물관

이원주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대학원 석사 재학

들어가며

2025년 1월 7일에서 1월 9일까지, 일본 규슈 지역 답사를 다녀왔다. 일본의 과거에 대해 배우고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답사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장소들에 직접 방문한 것이었다. 필자의 답사보고서는 ‘16세기 포르투갈 국제정치’, ‘예수회’, ‘루이스 프로이스’, ‘임진왜란’, ‘임진왜란에 대한 관점’ 등을 키워드로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답사 장소 중 데지마, 일본 26성인 기념관, 나고야성 박물관 등의 많은 장소들이 필자의 보고서와 관련이 있었다. 해당 장소들에 방문해 연구하고 찾아본 것들을 목도하며 생동감 넘치는 공부를 했다. 특히, 일본 26성인 기념관에서는 다양한 유물과 자료를 통해 답사 보고서의 주인공 루이스 프로이스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답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지난 학기 수강한 〈국제관계사연구〉 수업에서는 엔리케 두셀의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 신화’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책을 공부했다. 해당 책은 유럽인들과 아메리카인들의 만남을 조명하는데 그들의 만남은 평화롭지 못했고 엄청난 유혈사태와 폭력이 발생했다. 이러한 폭력의 예는 “잉카 제국의 타우안틴수요(현재의 페루)에서 저항은 아스테카보다 훨씬 강렬하고 또 지속적이었다. 또 카하마르카에서 아타우알파를 속인데서도 알 수 있듯이, 유럽인은 철저하게 배신했다. 아타우알파의 동생 루미냐우이는 키토에서 용감하게 저항하다가 고문을 받고 죽었다. 키스키스 장군은 스페인인들에게 연전연승했다. 칼리치마 장국은 산 채로 화형당했다.”와 같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두셀 2019, 182).

이것은 유럽인들이 자행한 폭력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이 책에서는 유럽인들이 벌인 만행을 폭로하며 근대성이 은폐한 다양한 폭력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다. 근대사의 핵심에는 이렇듯 폭력과 지배가 있었는데 두셀은 유럽의 시각에 의해 이것이 은폐되었다고 얘기한다. 두셀은 근대성이 타자를 희생시키는 폭력을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한다(황경상 2011). 이 책을 읽으

며 15세기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만남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생겼다.

이번 학기 사랑방 과정에 참여하며 일본과 관련된 답사 보고서 주제를 선정해야 했다. <국제관계사> 연구 수업을 통해 형성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떠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양과 일본의 만남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만남은 전혀 평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유럽과 일본의 만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을까?’와 같은 궁금증이 생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양과 일본의 만남을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1차 자료와 인물에 대해 조사해봤다. 그리고 그 결과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16세기 극동에서 활약한 예수회 신부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1563년에 일본에 도착하였고, 1597년 나가사키에서 사망할 때까지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프로이스 2008, 14-15). 그의 기록들은 서양인의 눈에서 바라본 전국시대 일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림 1〉¹⁾ 일본 26성인 기념관에 세워져 있는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념비. 루이스 프로이스가 26성인 중 한 명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1597년 3월에 ‘26성인 순교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프로이스 2003, 17), 처형당한 26명은 프로이스의 보고를 받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장상인 2013). 이런 공적을 기리기 위해 일본 26성인 순교 기념비 옆에 프로이스의 기념비도 함께 세워져 있는 것이다.

하영선 교수님께서서는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인물이 혼자 일본에 건너가 활동한 것이 아니며, 16세기 포르투갈의 세계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모델스키에 의하면 포르투갈은 16세기의 world power였다. 포르투갈은 세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예수회를 활용했고, 예수회의 일원으로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인물이 일본으로 가게 된 것

1) 본 논문에 첨부된 그림 자료들은 필자가 사랑방 답사에 참가해 촬영한 사진들이다.

이다. 또한 교수님께서도 프로이스가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 우리의 관심에도 해당하는 임진왜란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셨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자신의 『일본사』 마지막 10장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남기고 있다(프로이스 2008, 18).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한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이 둘을 연결해보는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었다.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한 당시의 조선·일본·명의 관점과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루이스 프로이스는 조선·일본·명과 달리 임진왜란의 국제적 성격, 포교적 성격, 정치적 성격, 그리고 기술적 성격에 추가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해당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해 당시 조선·일본·명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이다.

2. 주장 및 연구 방법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이 루이스 프로이스의 임진왜란에 대한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루이스 프로이스는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의 영향을 받은 반면, 조선·일본·명은 그러한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대한 관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연구는 제한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

으로 진행했다.²⁾ II장에서는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을 조명하고 포르투갈과 일본의 만남을 살펴본다. 해당 장에서는 모델스키의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Documenting Global Leadership*과 같은 책을 주로 참고했다. III장에서는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한 조선·일본·명과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을 살펴본다. 조선·일본·명의 경우 다양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세 국가가 임진왜란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조사했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경우 『일본사』의 임진왜란 관련 부분을 번역한 국내의 다양한 책들, 그리고 프로이스가 작성한 *Tratado*의 영역본인 *The First European Description of Japan, 1585*를 참고했다. 해당 책들을 바탕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그의 관점을 살펴봤다. 그리고 다양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루이스 프로이스의 생애에 대해 조사했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꿈·삶·앓·함을 조사해보는 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임진왜란에 대한 그의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과 관련된 루이스 프로이스의 꿈·삶·앓·함을 탐구한 것이다. 해석학적 방법을 적용해 루이스 프로이스가 머릿속에 그린 임진왜란이라는 그림은 어떻게 그려진 것인지 알아내고자 했다.

2) 연구의 시작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엔리케 두셀의 책과 〈국제관계사연구〉 수업, 그리고 하영선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필자는 두셀의 책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포르투갈과 일본의 만남 사례에도 관심이 생겼다. 하영선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해당 만남에서 어떤 사건과 특징에 주목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떠올리고 연구 주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

3.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세계화 차원에서의 교훈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의 식민지 개척, 항로 개척, 시장 확대 등은 ‘세계화’의 첫 단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 일본과 포르투갈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의 또 다른 국면에 서있다. 탈세계화가 되느냐 재세계화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를 고찰해보며 세계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의 교훈을 얻고 싶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은 명백히 일본이 잘못된 사건이다. 그런데 사료를 살펴보면 일본의 입장, 명나라의 입장은 꽤나 다른 것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임진왜란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동양인의 눈으로 바라본 임진왜란만을 살펴보지 않는다.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선교사의 눈을 빌려 서양인은 임진왜란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본다. 임진왜란에 대해 당시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임진왜란의 여러 가지 성격을 이해하고 싶다.

세 번째는, 국제정치에서의 구조의 영향력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국제정치에는 Agency vs. Structure, 즉 구조와 행위자 문제가 존재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그런데 루이스 프로이스의 사례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

레이다.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우연히 일본에 건너가 활동한 것이 아니며 16세기 포르투갈의 세계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포르투갈은 세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예수회를 활용했고, 그 예수회의 일원으로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인물이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맥락·구조·배경이 임진왜란에 대한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사례를 통해 Agency vs. Structure 문제를 다뤄보고, 구조와 맥락의 영향력을 확인해보고 싶다.

4. 선행 연구 검토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6세기 포르투갈에 대한 연구, 포르투갈과 일본에 대한 연구,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우선, 16세기 포르투갈에 대한 연구로는 조지 모텔스키의 연구들이 있다.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를 통해 그의 장주기론과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그가 실비아 모텔스키와 함께 작성한 *Documenting Global Leadership*을 통해서도 16세기 포르투갈이 Global Leadership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6세기 포르투갈이 세계질서를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보여주는 문서들도 참고할 수 있었다.

다음은, 포르투갈과 일본에 대한 연구인데 세 가지 종류로 기존 연구를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포르투갈과 일본의 관계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다. 이 연구들은 포르투갈과 일본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그 역사를 조명하는 연구들이다. 해당 연구들은 포르투갈과 일본 사이에 진행되었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최영수는 그의 논문에서 포르투갈의 극동 진출 과정, 포르투갈의 일본 발견과 양국 관계의 진전, 양국의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최영수 2005, 117-137). 홍성화는 그의 논문에서 16-17세기 포르투갈의 중일무역을 다루며, 포르투갈과 일본 사이에 어떤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홍성화 2014, 12-22).

두 번째는, 포르투갈과 일본의 만남에 있어서 예수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다.³⁾ 이 연구들은 예수회의 활동이나 예수회의 전략 등에 주목한다. 장혜진은 그의 논문에서 예수회의 선교 원칙과 선교 활동, 그리고 동아시아 선교 활동에 있어서 예수회가 전략으로 사용한 ‘적응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장혜진 2020, 109-130). 세 번째는, 당시 일본에 대해 서양인들이 지녔던 관점을 소개하는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당시 포르투갈과 일본의 만남에 참여했던 다양한 인물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행적과 그들이 남긴 글들을 소개한다. 강성우는 그의 논문에서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코스메 데 토레스, 알레산드로 발리냐노 등의 인물과 그들의 생각을 소개한다(강성우 2021, 182-185).⁴⁾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

3) 필자는 예수회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책을 참고했는데, 글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크리스트교’, ‘가톨릭’ 등 선호하는 표현이 달랐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글을 인용할 때 최대한 원문에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실었다.

4) 다만, 글의 가독성을 높이고 독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인명과 지명은 최대한 통일해서 적었다. 여기 등장하는 ‘사비에르’ 신부의 경우, 그를 ‘하비에르’, ‘샤비에르’ 등으로 표기한 글도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비에르’로 통일해서 적었다. ‘말라카’라는 지명도 ‘말레카’로 표기한 글이 있었지만 인용 과정에서 ‘말라카’로 통일해서 적었다.

고 일본과 조선에 대한 프로이스의 관점을 소개하는 여러 권의 책들 역시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혹은 그 직후에 간행된 문헌을 통해 당시 조선·일본·명이 해당 전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소개하는 연구들이었다. 조선의 경우 류성룡의 『난후잡록』·『징비록』,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평가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덴케이의 『서정일기』, 슈쿠로의 『숙로고』, 명나라의 경우에는 제갈원성의 『양조평양록』, 송응창의 『경략북국요편』 등이 참고할만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이런 문헌들을 토대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며 조선·일본·명의 관점을 소개했다. 임진왜란에 대한 당시의 서양 관점을 보여주는 글로는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가 있다. 『일본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다양한 책들을 통해 임진왜란에 대한 프로이스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포르투갈과 일본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나 예수회의 활동 등에 주목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것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맥락과 배경하에서 포르투갈과 일본의 교류나 예수회의 활동을 살펴보는 논문은 없었는데, 다시 말해 국제정치적인 논문이 부재했다. 또한, 임진왜란에 대한 동양의 관점, 서양의 관점에 대해 소개하는 연구는 존재했지만, 동서양의 관점을 함께 소개하고 동서양의 관점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는 부재했다.

본 연구는 포르투갈과 일본의 교류나 예수회의 활동을 그것 자체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뒤에 배경으로 존재하는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구조를 함께 고려한다. 그러한 프레

임워크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포르투갈과 일본의 만남, 경제적·문화적 교류, 예수회의 활동 같은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한데 엮어서 국제정치적 프레임 속에 집어넣는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한 당시의 동서양의 관점을 함께 살펴보고, 관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구조에서 찾는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II.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과 일본의 만남

1.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

모델스키는 그의 책과 논문을 통해 장주기 이론을 설명한다. 모델스키는 세계정치가 반복되는 주기를 가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주기마다 네 개의 단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첫 번째 단계는 global war 단계이다. 조직력이 약한, 거의 무정부상태와 비슷한 시기에 global war이 발발하는데 이러한 전쟁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탄생을 불러온다. 두 번째 단계는 world power 단계이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world power가 등장해, 세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delegitimation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세계를 운영하던 world power의 힘과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deconcentration 단계이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여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되고 그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global war을 촉발했던 무질서의 상태로 점차 회귀하

게 된다. 모델스키는 이와 같은 주기가 국제정치에서 반복되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Modelski 1978, 217; 1987, 30-31; 1988, 2-3).

모델스키는 그의 장주기 이론의 첫 번째 사례로 포르투갈에 주목하며 16세기의 world power는 포르투갈이었다고 얘기한다. 15세기 말에는 베니스의 세력이 매우 강성했다. 당시 베니스는 알렉산드리아와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다. 포르투갈의 왕들은 베니스인들이 무역 독점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누리는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다.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에서 여러 전쟁이 터졌고 그 결과 베니스의 권력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이 기회를 틈타 포르투갈은 새로운 world power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Modelski 1978, 218-219). 사실 당시 포르투갈보다 스페인이 오히려 더 강력했다고 보며 16세기를 스페인의 시기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모델스키가 포르투갈을 World Power라고 평가한 이유는, 당시 포르투갈이 oceanic supremacy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스페인은 육지의 지배자로 군림했다. 아메리카로 넘어가 영토 정복을 하며 식민지화에 집중했고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반면 포르투갈은 바다의 지배자였다. 동양과의 무역 주도권을 잡았고 이를 통해 글로벌한 시스템을 건설해냈다. 모델스키는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달리 해양에 초점을 맞추고 강력한 해양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포르투갈을 16세기의 World Power로 평가했던 것이다(Modelski 1978, 217; 1987, 41; 1988, 37-38).

포르투갈은 16세기의 World Power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global leadership을 행사하고 과시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계속해서 discovery에 나섰다. 그런데 이 discovery는 territorial conquest와는 다른 개념이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서로의 영토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의 다른 이름은

‘Agreement for the Division of the Ocean Sea’였다. 조약의 이름을 통해 포르투갈이 육지가 아닌 해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포르투갈의 마누엘 왕은 ‘Lord of Guinea and of the Conquest, the Navigation and Commerce of Ethiopia, Arabia, Persia and India’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는 그가 무역과 해양 통제권 확립을 중요한 목표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포르투갈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iscovery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Modelski 1988, 38-40).

두 번째로, 그들은 베니스에 의해 유지되어 온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니스는 포르투갈 이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고 베니스는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항로를 개척해 베니스가 누리고 있었던 독점을 타파했고 새로운 글로벌 무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Modelski 1988, 40).

세 번째로, 그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포르투갈은 단순히 그런 열망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에도 나섰다. 당시 포르투갈의 마누엘 왕은 인도로 가는 항로에 40여 척의 배를 보냈고 선박 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은 함대·요새·무역 거점·동맹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Modelski 1988, 40-41).

2. 포르투갈과 일본의 만남

이렇듯 포르투갈은 16세기의 World Power였고 그들이 가진 리더십을 전 세계를 향해 발산했다. 포르투갈은 해양을 탐험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무역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네

트위크를 형성하기 위해 세계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만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포르투갈의 상인들 그리고 예수회 신부들이 일본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우선, 상인들이 먼저 일본으로 넘어갔다. 포르투갈은 15세기 초부터 아프리카 서쪽 연안으로 탐험대를 보내 조사하여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다. 이후 그들은 1510년 인도 서쪽 연안에 있는 고아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동아시아 해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동아시아 해역 진출을 통해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했던 포르투갈은 발전하게 되었고, 그만큼 동아시아 해역은 포르투갈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장혜진 2020, 112).

포르투갈인들은 1543년에 일본을 발견하는데, 포르투갈 상인들은 일본에서 중국 해안에서보다 훨씬 이익이 많이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최영수 2005, 127). 1550년대 포르투갈 상선들은 일본 규슈 지역을 정기적으로 내항하며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동남 아시아산 향료나 유럽산 모직물을 중국산 견직물이나 생사, 도자기 등과 교역하였다(홍성화 2014, 5).



〈그림 2〉 밤에 바라본 데지마의 거리 풍경. 나가사키 항이 개항된 이후 나가사키는 남만무역의 중심지로서 급속히 발전했고 크리스티교 신자 수도 증가했다. 에도 막부는 그리스도교 포교활동을 저지하고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포르투갈인을 한군데 수용 및 무역을 엄격하게 감시할 목적으로 인공섬 데지마를 만든다. 그런데 1639년에 포르투갈 배의 도항을 전면 금지하는 쇄국령이 내려지면서 데지마 거주 의 포르투갈인은 모두 국외로 추방된다. 이후 막부는 1641년 히라도에 있던 네덜란드 상관을 데지마로 이전토록 했고, 데지마는 네덜란드인들의 상업 기지로 발전한다(공미희 2018, 141).

이 시기 포르투갈은 명나라에도 진출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 결과 1554년에 마카오에서 교역을 허가 받게 된다. 또한 1557년에는 마카오 거주에 관한 명정부의 허가도 받아낸다(홍성화 2014, 5). 포르투갈 상인들은 카자도라고 불리며 마카오를 거점으로 동아시아

각 항구에 정주하고, 상호 교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동아시아 교역에 참여했다(장혜진 2020, 113). 이들은 말라카-마카오-나가사키라는 루트를 정기적으로 항해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을 중개하며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홍성화 2014, 5). 일본에 중국의 비단을 팔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일본의 은을 구입해서 되파는 사업을 주로 했고, 일본과 중국 양측이 필요한 부분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맡았다(최영수 2005, 127-128). 그 결과 포르투갈인들은 유럽에서 일본 규슈 지역까지 그들의 무역권을 확대할 수 있었다(장혜진 2020, 116).

다음으로, 선교사들도 일본으로 넘어갔다. 1547년에 세 명의 일본인 범법자들이 말라카로 피신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와 만났고, 이들은 함께 고아로 떠났다(최영수 2005, 128). 사비에르 신부는 가고시마 출신의 해적 안지로에게 일본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그에게 세례를 주며 포르투갈어를 가르쳤다. 안지로와의 만남을 통해 일본의 복음화를 준비했던 사비에르는 1549년 일본으로 넘어가 최초로 일본에 기독교를 전파했다. 그는 2년 2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며 포교 활동을 했다(홍성화 2014, 8). 초창기에 일본 규슈 해안만을 왕래하던 포르투갈인들은 1549년 사비에르 신부의 도착과 더불어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후 양국의 관계는 더욱 더 활발해졌다(최영수 2005, 132). 사비에르를 비롯해서 가스파르 빌레라, 루이스 프로이스 등과 같은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향했고 일본에 머물며 포교 활동을 했다.

이 시기 예수회는 선교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남만무역(포르투갈 무역)을 활용했고, 남만무역에 참여하는 유럽의 상인들도 예수회의 중개 내지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무역 활동과 종교적 선교는 따로 구별되거나 독립적일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장혜진 2020, 110). 포르투갈인들은 이익의 추구하고 육체적 고행과 멸시를 극복한 영혼의 구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본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갔다(최영수 2005, 134).

루이스 프로이스는 16세기 극동에서 활약한 예수회 신부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포르투갈의 예수회 선교사로서 1563년 일본에 도착한 이래, 잠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추방당한 적은 있었지만, 1597년 65세의 나이로 병사할 때까지 줄곧 일본에 머물렀다. 프로이스는 일본에서 전국시대의 정치적 격변기를 몸소 경험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계획하고 치르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극소수의 이방인 중 한 명이었다(프로이스 2008, 14-15).

프로이스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다양한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그는 1582년부터 일본 부관구에 속한 신부로서 로마나 유럽의 예수회 수도원으로 보내는 예수회 일본 연례 서간문의 집필을 담당했다(프로이스 2008, 15). 프로이스는 *Tratado*라는 책도 남겼다. 해당 책은 서양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를 대조해서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이스는 이 책에서 서양과 일본이 양육·종교·식문화·무기·건축 등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예수회 일본 순찰사로 파견된 알렉산드로 발리냐노 신부의 지시를 받아 일본 포교사를 책으로 정리하였는데 이 책이 바로 『일본사』이다(프로이스 2017, 5-6). 프로이스는 『일본사』를 통해 세계 속의 일본이란 무대에서 예수회 신부들의 활약을 기술했고, 일본의 사회적·정치적·지리적 특성들을 다수 기술하고 있다(프로이스, 1999, 11). 『일본사』는 16세기에 작성된 저서들 중 일본 포교사업에 대한 가장 충실하고 완벽한 저서라고 할 수 있다(프로이스, 2008, 198).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 마지막 10장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은 1594년 초까지만 기술되어 있지

만, 해당 내용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 의도와 준비 과정, 전쟁 발발 전 일본의 정세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프로이스 2008, 197-198). 또한 10장에는 조선의 지형·기후·관습·복장·전통에 대한 묘사도 등장한다(프로이스 1999, 12). 16세기 포르투갈은 world power 였으며 세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수회를 활용했다. 그리고 예수회 소속 인물 중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선교사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제일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여러 측면에서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행위자이며 그가 남긴 기록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Ⅲ.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한 관점

해당 장에서는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한 조선·일본·명의 입장, 루이스 프로이스의 입장 등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필자의 원래 목표는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한 조선·일본·명과 루이스 프로이스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을 바꿔 임진왜란의 ‘성격’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루이스 프로이스의 글에서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사』에서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며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행간을 읽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 낸 것이지, 프로이스가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격’이라고 했을 때 그 속에 원인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일

본·명과 루이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의 여러 측면에 대해 방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한 입장만 파악하는 것은 좁은 시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임진왜란의 원인을 포함해서 임진왜란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해당 장에서는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한 조선·일본·명의 입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입장은 임진왜란 당시 혹은 그 직후의 글들을 참고해 발견하고자 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전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연구가 국가마다 있어 왔지만,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인물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당대의 글과 주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이스 프로이스와 동시대인이면서 임진왜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인물들의 기록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최대한 다른 나라의 기록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 나라의 낯것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에 초점을 맞췄다.



〈그림 3〉 일본의 임진왜란 출정지였던 나고야 성터에서 바라본 바다.
 답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임진왜란에 대한 관점 차이와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했다. 나고야 성터를 방문해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이곳에서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을까?’, ‘일본인들은 어떤 심정으로 바다 건너를
 바라봤을까?’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 조선·일본·명의 관점과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 차이

(1) 조선·일본·명의 관점

조선의 경우, 류성룡의 저서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류성룡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영의정·도체찰사 등을

역임하며 전란의 한복판에서 활약한 인물이다(장준호 2020, 13).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작성한 『난후잡록』·『징비록』과 같은 사료들은 임진왜란에 대한 당대의 조선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징비록』은, 국가의 공식 기록이지만 당파성의 영향으로 공정하지 않은 기록으로 평가받는 『선조실록』을 보완할 수 있는 사료이다. 『징비록』은 류성룡이 임진왜란의 원인을 구명하고, 전란의 전개 과정에 따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 등을 중심으로 찬술한 기록이다. 『징비록』은 실제로 『선조실록』의 수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고 조선 후기 각종 문헌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등 그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았다(장준호 2020, 14-15).

『난후잡록』은 『징비록』의 초고로 평가받는 책이다. 『난후잡록』에서는 임진왜란의 주요 원인으로 명종 대 권신으로 인한 정치 문란, 을묘왜변 당시 드러난 군정 문란, 선조 대에 시작된 당쟁을 꼽고 있다(정해은 2021, 188). 『징비록』에서는 일본으로 보낸 통신사가 가지 못한 채 되돌아 온 이후로 사신을 파견하지 않은 100여 년 동안에 일본 동향을 도외시한 데서부터 전쟁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정해은 2021, 189). 류성룡은 우리가 일본과 선린우호를 맺어온 지 200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신숙주의 임종 시 성종과의 일화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신숙주가 임종 시에 성종에게 일본과 실화하지 말 것을 유언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懲毖錄』 권1: 장준호 2020, 66에서 재인용). 이것은 일본과 실화한 것이 일본의 침략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한 것이다(장준호 2020, 66).

또 함께 불만한 문헌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다. 이수광은 임진왜란 당시 전선과 조정의 중심에서 모두 활동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런 이유로 그가 남긴 저작은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가치를 지닌다. 그는 『지봉유설』에서 전쟁을 회고하며 여러

논설과 현실 대책을 남기고 있다(김경태 2018, 77). 이수광은 전쟁이 시작된 원인을 오로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욕구’에서 찾았다(김경태 2018, 85). 그러면서도 그는 전쟁 이후 취해야 할 대책을 제시하는데, 군량과 군사 확보책, 군사제도의 운용, 농공행상 등의 분야에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芝峯類說』: 김경태 2019, 93-105에서 재인용).

다음은 일본의 관점이다. 텐케이의 『서정일기』가 참고할만한 사료이다. 텐케이는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야의 종군승이었고, 그는 조선에 대한 문서 작성을 담당했다. 『서정일기』는 텐케이의 진중 일기이다(현병주 2016, 17). 『서정일기』에는 “신이 여기 와서 우리 군대를 물러나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강화를 위함입니다. ... 이에 앞서 여러 차례 귀국에 사신으로 와서 전쟁의 승패에 대해 아뢰었으나 귀국이 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패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전하는 귀국의 길을 빌려 대명국에 원한을 갚고자 합니다. 지난 해 귀국의 통신사에게 이를 상세히 고하였고 신 또한 이러한 내용으로 조정에 편지를 보내었으나, 귀국의 변신들은 국경을 굳게 지킬 뿐 우리가 길을 지나도록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를 격파하고 상주에 이르러 조정에 서한을 보내었으니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와 같은 글이 실려 있다(『西征日記』: 김시덕 2012, 93에서 재인용). 해당 기록을 통해 일본이 전쟁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속로고』 역시 참고할만한 사료이다. 『속로고』는 모리 데루모토의 종군승 슈쿠로가 남긴 글이다. 그는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정당성과 민간인 학살의 당위성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우리 군은 개선헌 군영으로 돌아와서 배어온 귀를 요시카와 경의 앞에 늘어놓았다. 경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다친 호랑이를 남겨두는 꼴이다. 노약자, 부녀자를 가리지 말고 한꺼번에 죽여야 한다.”와 같은 구절을 통해, 무차별 학살에 대한 슈쿠로의 지지를 엿볼 수 있다(신성민 2022).

마지막은 명의 관점이다. 제갈원성의 『양조평양록』이 살펴볼만한 사료 중 하나이다. 이것은 임진왜란 직후에 중국의 입장에서 집필한 임진왜란 통사이다(현병주 2016, 18). 『양조평양록』에서는 문란하고 무능한 조선의 정치와 조선 국왕 선조의 음란함, 류성룡·이덕형 등 간신의 발호로 조선이 일본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명나라 군대가 조선을 구해준 것이라는 주장이 되풀이된다. 이런 식으로 조선의 무능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주장은 이후 중국의 『무비지』·『명사기사본말』, 일본의 『조선정벌기』 등에 영향을 줬다(김시덕 2012, 166-167).

다음은 송응창의 『경략복국요편』이다. 송응창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부터 이듬해까지 명군을 총지휘한 경략으로, 전투에 임한 제독 이여송에게 물자를 지원하면서 전쟁을 수행했다. 『경략복국요편』에는 중국 시각에서 본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 일본의 조공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 명 조정 비판에 대한 해명 등이 담겨있다. 송응창은 왜가 조선을 차지하면 중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아군이 조선을 구제하는 것은 사실 중국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박상현 2021).

임진왜란에 대한 당시의 조선·일본·명의 관점은 이렇듯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의 국내정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시의 조선·일본·명의 여러 기록들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이유를 고찰함에 있어서 일본 측의 국내정치적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임진왜란이 순전히 일본 탓이라고

보는 입장의 글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 욕심과 공명심에 주목하고 있을 뿐, 일본의 정치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일본 측의 문헌들에서는 조선의 책임을 내세우는 연구가 많아 일본의 국내정치에 대한 서술이 배제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의 성격을 진단할 때 동아시아라는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시의 조선·일본·명의 여러 기록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기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개선할 점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일본·명 세 나라에만, 동아시아 내부에만 주목하고 있었다. 세 국가는 모두 임진왜란을 조선·일본·명이 관여된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바라봤고 ‘동아시아’라는 맥락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2)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은 앞서 살펴본 조선·일본·명의 관점과 공통점을 갖는다. 루이스 프로이스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에 주목했던 것이다. “원래부터 관백(히데요시)은 자신의 명성을 과시하고 기념하기에 도움이 되는 대사업을 일으킬 기회를 놓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관백은 영예와 명성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와 같은 『일본사』의 구절들을 통해(프로이스 2003, 151; 2003, 166), 프로이스가 히데요시의 야욕과 공명심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선·일본·명의 관점과 루이스 프로이스 관점의 차이이다. 루이스 프로이스가 바라보는 임진왜란의 성격은 조선·일본·명이 바라보는 임진왜란의 성격과 달랐는데, 프로이스는 조선·일본·명과 달리 네 가지 측면에 추가적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임

진왜란의 국제적 성격이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을 동아시아를 넘어선, 일종의 국제전쟁으로 바라봤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의 포교적 성격이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을 통해 예수회의 세력 확장과 기독교 전파를 어느 정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임진왜란의 정치적 성격이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히 일본의 국내정치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임진왜란의 기술적 성격이다. 프로이스는 해양 기술과 화약무기 기술이 임진왜란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고 본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은 조선·일본·명의 관점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조선·일본·명의 관점은 공통적으로 일본의 국내정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는데,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의 정치적 성격에 주목하며 일본의 국내정치를 중요하게 살피고 있다. 또한 조선·일본·명은 임진왜란을 동아시아라는 맥락 속에서만 바라보고 있는데,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의 국제적 성격과 포교적 성격, 그리고 기술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특징들에 주목하며 프로이스는 더 넓은 시각으로 임진왜란을 바라본다. 이렇듯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는 동양 삼국의 관점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대한 관점을 연구할 때 당시의 동양 삼국의 관점과 더불어 루이스 프로이스의 연구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관점은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구조·배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국제적·포교적·정치적·기술적 성격에 주목할 수 있었다. 반

면, 조선·일본·명은 그러한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국제적·포교적·정치적·기술적 성격에 주목하지 못했다.

2. 루이스 프로이스 관점의 형성 요인

(1) 임진왜란의 ‘국제적’ 성격

루이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의 국제적 성격에 주목했다. 임진왜란을 동아시아를 넘어선 일종의 국제전쟁으로 바라봤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사』에서 인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이스는 『일본사』에서 1590년 6월 인도 부왕의 사절이 히데요시를 접견하는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예수회 소속 신부인 알렉산드로 발리냐노가 인도 부왕의 사절로 일본 나가사키에 왔다는 것이다(프로이스 2017, 370-371). 또한 프로이스는 『일본사』에서 여러 차례 히데요시의 편지를 인용한다. 프로이스는 히데요시가 인도 부왕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또한 저는 반드시 중국 왕국을 정복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라로 건너갈 것이고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복 야욕을 내비치는 부분에 주목한다(프로이스 2017, 405).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카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세계를 나누어 가진 세 나라, 곧 일본·중국·인도 가운데에서 나에게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과 같이 얘기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프로이스 2003, 221). 이렇듯 루이스 프로이스는 『일본사』의 임진왜란 관련 장에서 인도 사절 얘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인도와 관련된 히데요시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임진왜란을 단순히 동아시아만의 전쟁이 아닌, 인도 역시 관여된 전쟁으로 본 것이다.

임진왜란을 동아시아를 넘어선 일종의 국제전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일본사』에서 천주교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의 전개에 대해 서술하며 “관백 전하의 명령을 받아서 히고노쿠니의 반을 다스리던 영주인 아고스피노 쓰노카미 도노, 곧 고니시 유키나가는 곧바로 원정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규슈 지방의 모든 천주교도 무장들이 배치되었다. 그 한 사람은 뽀로파지오 아리마 하루노부 영주로, 그는 수많은 고귀한 귀족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타고난 주도면밀함과 과감한 행동으로 전투를 위한 각종 무기와 탄약을 가장 잘 갖추었는데, 그 점에서 이채를 발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가 있었다.”와 같은 기록을 남긴다(프로이스 2003, 189-190). 또한, “사제가 머물던 지방의 천주교도들은 가능하면 사제에게 고해를 하고, 성체를 받고서 이번 원정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들 천주교 신자 전원이 아고스피노 휘하에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이며, 아고스피노의 간청에 답하여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가 조선으로 특파되었던 것이다.”와 같은 기록도 남기고 있다(프로이스 2003, 191; 2003, 245). 프로이스는 임진왜란 관련 장에서 계속해서 천주교에 대해 언급하며 임진왜란에서의 천주교도들의 활약과 사제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는 임진왜란을 단순히 동아시아만의 전쟁이 아닌, 예수회를 비롯한 서구의 천주교 세력이 관여된 전쟁으로 본 것이다. 정리하자면 프로이스는 동양 삼국과 비교해봤을 때, 임진왜란을 조금 더 넓은 차원의 전쟁으로 바라봤다.

임진왜란을 일종의 국제전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로이스의 어린 시절 경험, 그가 받은 교육과 참여한 활동,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준 인물과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프로이스의 어린 시절 경험이 그의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포르투갈은 당시 글로벌한 시야를 가진 국가였다. 앞서서도 확인했듯이 16세기의 World Power였던 포르투갈은 당시 어떤 나라보다도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 그런데 프로이스는 포르투갈 왕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1532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태어난 프로이스는 귀족 출신이었고, 1541년 9살의 나이로 포르투갈 왕실 비서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프로이스 2003, 13). 왕실에서 일하며 프로이스는 포르투갈의 글로벌한 시야를 배우고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프로이스가 받은 교육과 그가 참여한 활동이 그의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프로이스가 예수회에 입회할 당시, 포르투갈은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미 인도까지 진출한 상황이었다. 인도에 진출한 포르투갈의 목적은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과 글로벌 무역 체계의 형성이었다. 포르투갈은 교역을 통해 이윤을 얻고자 했으며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르투갈의 왕 요한 3세는 인도에 선교사들을 파견했는데, 루이스 프로이스도 인도 고아로 파견되었다(박영호 2003). 그는 인도 고아로 넘어가 세인트 폴 대학을 다니며 선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여기서 그는 고아 관구장의 비서로 활동하기도 했다(프로이스 2003, 13). 프로이스는 또한 인도의 여러 지역과 말라카 등을 방문하면서 식견을 넓혀 나갔다(프로이스 2008, 184-185). 포르투갈의 선교사 정책에 따라 인도로 넘어가고, 또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여행하게 되면서, 프로이스는 더 폭넓은 시야를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대해서술할 때 인도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등, 해당 전쟁을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이스에게 영향을 준 인물과 자료를 살펴봐야 한

다. 여러 인물과 다양한 자료의 영향을 받아 해당 관점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프로이스는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신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비에르는 프로이스보다 인도로 먼저 넘어가고, 또 일본에 최초로 선교를 떠났던 인물이다(홍성화 2014, 8). 프로이스는 글로벌하게 활동했던 사비에르 신부의 제자였기 때문에(김학준 2009, 269), 그의 폭넓은 시각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프로이스는 상인들과 기독교도인들, 예수회 신부들로부터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얻었다(프로이스 1999, 11). 그는 일본 부관구장 가스파르 코엘류를 따라 1586년 포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던 일본의 모든 지역을 여행해 그곳에서 만난 신부와 수사와 가톨릭교도들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은 것이 『일본사』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한다(프로이스 2008, 196). 그는 또한 세스페데스 신부가 조선에서 쓴 편지 덕분에 한반도 정세에도 밝았다(박영자 2016). 포르투갈은 글로벌한 네트워크와 무역 체계를 형성하게 위해 예수회 선교사를 활용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 사비에르 신부였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그런 인물에게 배우며 글로벌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 각지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고 그들의 글을 읽어보며, 더 넓은 시각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였기에 임진왜란을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 동아시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2) 임진왜란의 ‘포교적’ 성격

루이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이 포교적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을 통해 예수회의 세력 확장과 기독교 전파를 어느 정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사』에서 임진

왜란 얘기를 하며 천주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바로 위의 항목에서 살펴봤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에서의 천주교도들의 활약, 사제의 역할 등에 주목하며 임진왜란을 천주교 세력이 관여된 전쟁으로 바라본다. 임진왜란의 전개를 서술하며 천주교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천주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스가 임진왜란을 천주교와 관련된 전쟁이라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프로이스는 조선에서 보내온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의 두 번째 편지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는 그날 밤 그의 조카 및 다른 30명의 고위 무사들에게, 그리고 다음날에는 다시 1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들이 보여 준 환희하는 모습과 기도문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열심히 외우는 모습에서 적잖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천주교도의 휘장이 되는 물건을 저에게 요구해 왔으므로 모두에게 로사리오를 주었더니 매우 위안을 느끼는 듯했습니다.”와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프로이스 2003, 256). 조선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포교 얘기는 아니지만, 해당 구절을 통해 예수회가 전쟁에 참여한 일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세례를 주고 포교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이스를 비롯한 예수회는 임진왜란을 포교의 수단으로 바라봤던 것이다.

임진왜란을 일종의 포교의 기회로 생각하는 관점은 프란시스코 빠시오의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사』를 번역한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책에는 부록으로 프란시스코 빠시오가 작성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에 대하여’라는 글이 실려 있다(프로이스 2003, 329-353). 해당 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종 관련 정황을 담은 글이다. 프로이스는 1597년에 병사했기 때문에 히데요시의 임종에 대해 기록할 수 없었고, 프로이스 사후 일본의 사정에 대

한 이해를 돕고자 위의 책에 해당 글이 부록으로 실린 것이다. ‘도요 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에 대하여’라는 글은 프로이스가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프로이스와 동시대에 그리고 같은 공간인 일본에서 활동했던 예수회 소속의 신부 빠시오가 작성한 글이다. 프로이스와 빠시오는 둘 다 예수회 소속으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했을 것이고, 같은 시간대와 장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공통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빠시오의 글은 참고할만하다.

해당 글에서 빠시오는 “이리하여 전후 7년에 걸친 조선 전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일본인) 천주교도의 커다란 노고와 비용 지출 위에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천주교도 영주들에게는 자신의 영지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는 유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지는 천주교회에 해아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면서 히데요시에 의해 다른 영주들의 손에 넘어 갔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포교 상의 성과, 또한 이렇듯 수많은 영주와 고귀한 사람들 사이에 놀랄 정도로 전파되었던 이 새로운 포도원에서 별다른 장애에 부딪히지 않고서 순조롭게 수확이 가능했던 것, 더욱이 이 시기에 저희가 매우 존경하옵는 사도님을 무사히 일본에서 맞이하게 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한다(프로이스 2003, 351). 그는 천주교도들의 전쟁 참전 사실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교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빠시오의 글을 통해 우리는 당시 프로이스를 포함한 예수회가, 임진왜란을 포교의 수단으로 바라봤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을 일종의 포교의 기회로 생각하는 관점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회의 영향과 프로이스에게 주어진 임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예수회가 그의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포르투갈은 예수회를 전 세계로 파견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예수회의 선교를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예수회가 아시아로 넘어간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영혼을 구제해주는 선교에 있었다(최영수 2005, 134). 구체적으로 예수회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선교 원칙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선교에 나섰는데 일본 문화와 일본인에 대한 긍정적 수용, 포르투갈 상선의 일본 내항을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용, 봉건영주의 선교 허가를 통해 신하와 영민에 대한 선교의 자유 확보, 기회를 활용하여 수도인 교토 선교에 착수가 그 원칙들이다(장혜진 2020, 121). 또한 예수회는 일본 풍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향하여 일본 위정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 사회에 반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일본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그 리스도교가 일본 사회에서 제도 종교로 진입할 수 있게 노력했던 것이다(장혜진 2019, 60). 루이스 프로이스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예수회 소속의 신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본으로 넘어간 목적 역시, 천주교의 전파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은 예수회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조선·일본·명이 모두 참여한 전쟁이다. 예수회의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였기에, 루이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 역시도 중국과 조선 등을 포섭하기 위한 기회,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프로이스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의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포르투갈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예수회를 활용하며 세계 각지로 신부들을 파견했다. 그런데 예수회는 제대로 된 포교를 하기 위해 신부들이 따를만한 지침 같은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훗날 포교 활동에 나설 신부들을 위해 앞서 활동했던 신부들의 포교 활동과 전략 등을 담은, 참고할만한 자료가 필요했을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작성하는 임무가 루이스 프로이스에게 내려졌다. 조반니 피에트로 마페이 신부는 포르투갈령 동인도에서의 예수회 포교활동에 대한 글을 쓰려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프로이스가 작성한 예수회 연례서간문을 읽고 프로이스의 문장가로서의 재능을 알게 된다. 그는 예수회 총장인 에베라르도 메르쿠리아노에게 서신을 보내 프로이스에게 일본 예수회 신부들의 포교활동과 발전사는 물론 일본에 대한 정보, 포교활동에 장애가 된 내전에 대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할 것을 제안했다. 메르쿠리아노 총장 사후 후계자인 클라우디오 아쿠아비바 신부는 이 제안을 수용했고 이후 발리냐노에게 서신을 보내 이를 지시했다. 발리냐노는 1584년 4월 일본 예수회 부관구장인 가스파르 코엘류에게 서신을 보내 프로이스에게 『일본사』 집필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프로이스는 『일본사』 집필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프로이스 2008, 188-189).

실제로 프로이스가 『일본사』에서 애초에 다루고자 했던 것은 일본에서의 반세기에 걸친 천주교 포교와 발전의 역사였다(프로이스 2003, 11). 프로이스는 『일본사』의 서문에서 집필 이유를 “가톨릭 포교를 위해 노력하는 신부와 형제들에게 과거 선행자들의 업적을 알게 함으로써 이들을 고무시키고, 『일본사』가 유럽에서 출판돼 아주 먼 지역에서도 가톨릭 포교와 발전사를 알리려는 예수회 총장님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히고 있다(프로이스 2008, 195). 루이스 프로이스는 예수회로부터 포교활동에 대해 정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스스로도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자신의 활동, 임진왜란과 관련된 정황을 관찰하는 자신의 행동이 모두 포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지했을 것이다. 그 결과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을 일종의 포교적 성격을 가지는 전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포교활동을 기록한 책

에 임진왜란 얘기가 많은 장에 걸쳐 적혀 있다는 사실은, 프로이스가 해당 전쟁을 포교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임진왜란의 ‘정치적’ 성격

루이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을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전쟁으로 바라봤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사』에서 그가 일본의 국내정치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사』에는 “그런데 그(히데요시)는 일본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쉽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제후는 싸움이나 모반에 의해 자신이 일단 결정한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자국을 안전하게,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 지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제국의 영주를 농락하고 복종시킨 뒤에는 그 절묘한 수완과 배려에 의해 그들을 중국 정복이라는 계획에 몰아세우고자 결심했다.”, “일본의 무장들은 관백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랐기 때문에”와 같이 히데요시와 일본 무장들의 속마음을 서술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한다(프로이스 2003, 165; 2003, 167).

또한 『일본사』에는 “관백은 그들 모두의 내심을 실로 잘 간파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호의와 관대함을 보이는 한편, 이따금 방황하는 늑대처럼 끔찍하게 울부짖으며 무서운 협박의 말을 내뱉는 것도 잊지는 않았다. 그는 감히 자신의 결정에 반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사려 없는 까닭으로 사멸시키고 영토는 파괴하도록 하라.”고 말하여 모두를 더 없는 공포감으로 제압하였다.”, “나는 일본 왕국, 곧 천하의 군주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재보·번영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포기하고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명예롭고 경탄할 만한 계획을

나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한다. 모두는 이 계획과 도항에 나를 좇고, 만일 목숨을 바치게 되더라도 그것은 나와 함께 영원히 기념되고 찬미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생을 달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그 숭고한 용기로 세상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유지하고서 일이 순조롭게 진척되면 새로운 정복으로 획득될 제국·봉록·유리한 영지를 하사 받아 너희는 많은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이 히데요시가 일본의 제후들에게 했던 발언도 인용되어 있다(프로이스 2003, 175-177).

해당 발언들에 주목하며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을, 히데요시가 일본 내 반대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벌인 전쟁, 공을 세우고 싶은 일본 제후들의 정치적 야망을 활용한 전쟁 등으로 바라봤다. 추가적으로, 프로이스는 『일본사』에서 임진왜란에 대해 히데요시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한편 전국 다이묘들의 재산을 빼앗고 일본에서 몰아내려는 술책이라고 평가하며 히데요시를 비난한다(프로이스 2008, 197). 위의 구절들과 그의 평가를 통해, 프로이스가 일본의 국내정치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본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일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예수회의 적응주의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프로이스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그의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1532년 리스본에서 태어나 16세에 예수회에 입회한다. 그리고 동인도회사가 있던 인도 고아로 파견되어 고아 관구장의 비서로 활약한다. 당시 아시아 각 지역의 선교사들이 로마의 예수회 총장에게 보내는 모든 보고서는 고아 관구장을 거쳐야 했는데, 프로이스는 비서 자격으로 그 문서를 모두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시아 각 지역의 정세, 특히 일본 사정에 정통하게 된다(프로이스 2003, 12-13). 더 나아가 그는 세스페데스 신부가 조선에서 쓴 편지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정세에도 밝았다(박영자 2016).

프로이스는 다른 인물들의 글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일본을 돌아다니며 정부를 입수했다. 그는 일본의 모든 지역을 여행해 그곳에서 만난 신부와 수사와 가톨릭교도들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은 것이 『일본사』 집필에 있어서 특히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이스는 일본 지역에 대한 생생하고도 비교적 정확한 정보는 물론 주요 인물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프로이스 2008, 196). 포르투갈은 세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수회를 수단으로 활용했고, 예수회는 세계로 나아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프로이스는 그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실제로 그것들을 공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본으로 가기 전에도 이미 일본 사정에 정통할 수 있었다. 일본의 여러 국내정치적인 사정과 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여러 경로를 통해 히데요시와 일본의 국내정치적 사정에 밝았던 프로이스였기에, 임진왜란에 대해 서술하며 일본의 국내정치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프로이스는 동양 삼국에 비해, 임진왜란을 일본의 국내정치적 사정과 더욱더 엮어서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예수회의 적응주의 전략이 그의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수회가 동아시아 선교활동에 있어서 대외 전략으로 세웠던 방침은 ‘적응’이었다(장혜진 2019, 53). 이것은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시대의 선교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담론인데, 종교가 타문화 혹은 타세계의 질서 속에 정합적으로 자신을 자리

매김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론적 전략이 바로 ‘적응’ 혹은 ‘적응주의’라고 할 수 있다(장혜진 2019, 55). 예수회 선교사들의 일본 선교와 중국 선교도 적응주의 선교의 특징을 보였다. 예수회는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선교를 위해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충분히 학습하여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구체적으로 익히고자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배층이나 지식인들과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 교리를 전파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시 스페인과 프랑스 등이 신대륙에서 행하던 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기독교 전파 전략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김종건 2011, 1-2). 사비에르, 발리냐노 등이 추진한 적응주의 선교방식은 위로부터의 선교의 확대, 선교사들의 생활양식 변화, 선교사들의 토착 언어 학습, 토착 성직자들의 양성 등으로 이어졌다(김혜경 2010, 21-25).

프로이스는 예수회가 적응주의 전략을 채택한 시기에 일본에서 활동한 선교사였고, 적응주의 선교를 내세웠던 사비에르의 제자이기도 했다(김학준 2009, 269). 언어적 능력이 뛰어났던 프로이스도 해당 전략에 따라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프로이스는 1563년 7월 6일에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일본어를 공부하는 등 현지 적응을 위한 학습에 힘썼다(프로이스 2003, 13-14). 그리고 노력의 결과 프로이스는 일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지배층과 교류를 할 수 있었다. 프로이스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교류하고 그들을 지켜보며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프로이스는 오다 노부나가가 교토에 입경하여 권력을 장악한 후 10년 남짓의 기간 동안 그와 약 18회에 걸쳐 개인적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이스는 히데요시를 오사카 성에서 알현하기도 했고, 발리그니아누 일행이 주라쿠테에서 히데요시를 알현할 때 동행하기도 했다(프로이스 2003, 14-16).

프로이스 『일본사』의 한 가지 특징은 그가 상당히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스는 일본 측의 어떠한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히데요시가 육손이라는 신체적 결함까지도 과감히 언급한다. 더 나아가 천황이 몹시 궁핍하게 살았다는가, 쇼군이 매우 어리석었다는가, 히데요시가 매우 기만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사실 등을 거리낌 없이 전달한다(프로이스 2003, 11). 이러한 객관적인 서술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일본인이 아닌 국외자라는 자유로운 입장에 서있었기 때문도 있겠지만(프로이스 2003, 11), 일본에 오랜 기간 체류하며 일본의 권력자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포르투갈은 세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수회를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당시 예수회가 일본에서 펼친 전략은 ‘적응주의’였다. 포르투갈과 예수회는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다. 프로이스는 앞서 살펴본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일본 사정에 정통했는데, 예수회의 적응주의 전략 덕분에 일본에 머물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본 국내정치를 더욱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이 그가 직접 보고 들은 일본의 국내정치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임진왜란이 일본의 국내정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4) 임진왜란의 ‘기술적’ 성격

루이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에 사용된 기술에 주목했다. 해양 기술과 화약무기 기술이 임진왜란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사』에서 그가 조선과 일본의 함선과 무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이스는 “그들(조

선인)은 터키 인의 활과 같은 작은 활을 매우 잘 다루고, 독을 바른 화살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들이 타는 배는 견고하고 크며, 상부에 갑판을 두르고 있다. 화약 용기와 화기들을 사용하며, 쇠로 된 사석포와 같은 포를 쓰는데, 탄환을 사용하지 않고서 대신 쇳조각을 물고기 꼬리같이 덧붙인, 사람 넓적다리 굵기의 나무 화살을 채워 넣어서 발사한다. 이들 화살은 부딪치는 어떤 것도 다 꿰뚫어 파괴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 밖의 무기는 위력이 없고, 특히 칼은 짧으며 그다지 쓸모가 없다. 개머리판이 없는 몇 가지 총포를 사용한다고도 한다.”와 같이 조선의 함선과 무기에 대해 소개한다(프로이스 2003, 185-186).

프로이스는 “관백의 두 지휘관 곧 가토 도라노스케와 아와노쿠니의 영주인 다른 한 사람은 바다에서 조선인이 일본군에게 끼쳤던 막대한 손해를 보고서 가지고 있던 300척의 함대를 조선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회전에 필요한 무기·탄약을 적재하고서 유능한 정예 병력을 승선시켰다. 그들은 수많은 총포·창·활과 화살을 휴대하였다. 이렇듯 일본군은 자신들의 우수한 장비를 믿고서 약간의 배밖에 보유하지 않은 조선의 해적을 찾아서 출격하였다.”와 같이 일본 측의 함선과 무기에 대해서도 얘기한다(프로이스 2003, 234).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데 이전부터 조선인은 일본 배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조우하자 큰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며 배를 몰아 일본의 함대를 공격했다. 조선의 선박은 높고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배를 압도하였다. 우선 조선 수군 쪽에서 화기에 의한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인을 몹시 애먹이고 괴롭혔기 때문에, 일본인은 조선인들의 이 성가신 접근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바다 쪽으로 멀리 나아가는 전술로 응전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노를 저어 배와 함께 달아날 수 없게끔 튼튼한 갈고리가 달린 쇠

사슬을 위에서 집어던졌기 때문에 일본 배들은 쉽게 빠져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와 같이 조선과 일본의 해상 전투에 대해서 언급하며, 해양 기술과 화약무기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프로이스 2003, 234-235).

또한 그는 “일본 국내의 분쟁을 종식시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싶고 그것을 달성한 후에는 일본국을 동생인 히데나가에게 양도하고 나 자신은 조선과 중국 정복에 전념하고 싶다. 그 준비로 대군이 바다를 건널 때 사용할 2,000척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현재 목재를 모으고 있다. 나는 선교사들에게 충분한 장비를 갖춘 대형 나우선(14~16세기 유럽에서 이용한 대형 범선) 두 척의 조달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 외에 다른 원조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그 나우선도 무상으로 얻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라는 히데요시의 발언을 인용하며, 임진왜란을 위해 히데요시가 예수회에 나우선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프로이스 2017, 269).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에 여러 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언급하며 그것들이 임진왜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임진왜란에 활용된 다양한 기술에 주목하는 관점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포르투갈의 해상 강국 지위, 그리고 예수회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포르투갈의 해상 강국 지위가 프로이스의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델스키는 포르투갈이 oceanic supremacy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을 World Power라고 평가했다. 16세기의 포르투갈은 강력한 해양 기술로 무장한 바다의 지배자였다. 즉, 포르투갈이 세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양 기술은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예수회와 상인들은 포르투갈의 해양 기술과 선박을 이용해 세계 각지로 나아갈 수 있었다. 프로이스 역시 인도나 일본으로 파견되는 과정과 여러 지역을 여행하

는 과정에서 포르투갈의 선박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장시간 바다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선박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것이다. 실제로 프로이스는 *Tratado*라는 책의 12장에서 ‘Ships, seafaring and dogus’에 대해 서술하며 선박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그는 해당 장에서 일본의 선박과 유럽의 선박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정도로 해양 기술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Frois 2014, 217-226).

추가적으로, 프로이스는 오랜 기간 일본에 직접 머물고 정치인들과 교류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일본의 해양 기술과 선박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히데요시 자신이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보와 조선의 사정과 지세가 인쇄되어 있는 여러 지도에 근거해(프로이스 2003, 183), 조선의 해양 기술과 선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해양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대한 서술에서도 관련 부분을 많이 언급하며 임진왜란에서 활용된 기술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예수회의 활동이 프로이스의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앞서 II장에서는 일본에서의 무역활동과 종교적 선교가 따로 구별되거나 독립적일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포르투갈 상인들과 예수회는 힘을 합쳐서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상인들은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회의 중개 내지 도움을 받아야 했고, 예수회 스스로도 무역에 참여했다. 그리고 예수회가 참여한 대표적인 무역이 바로 무기를 판매하는 철포 무역이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과 일본 등에 서양식 화기를 거래 조건으로 그리스도교 선교를 시작하였다(장혜진 2020, 115). 더 나아가, 서양식 화기 거래를 통해 현지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도 했다(장혜진 2020, 120). 선교사들은 서양식 화기를 가져와서 전국 다이묘의 정치,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었는데, 일본 위정자들은 자신의 군사력 강화 내지 영지 확장을 위해서 서양의 선진 무기인 대포나 화승총을 강력하게 필요로 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포르투갈 상선을 자신의 영지에 있는 항구로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예수회는 이들을 통해 재정을 충당했다(장혜진 2020, 122-123). 예수회는 일본에 무기를 판매하며 기술 전파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스 역시 자연스럽게 화약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이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프로이스는 *Tratado*라는 책의 7장에서 ‘Japanese offensive and defensive weapons and warfare’에 대해 서술하며 무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그는 해당 장에서 일본의 무기와 유럽의 무기를 비교하고 있을 정도로 무기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보여주는 데, 해당 장에서는 화약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Frois 2014, 147-162). 추가적으로, 프로이스는 오랜 기간 일본에 직접 머물고 정치인들과 교류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화약무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다. 포르투갈은 세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수회를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예수회는 일본에서 첩포 무역을 활발히 전개해나갔다. 프로이스는 그러한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였고 일본에 장기간 체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약무기에 대해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임진왜란을 지켜볼 때도, 해당 전쟁에 사용된 화약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연구의 기대효과

1. 결론

루이스 프로이스는 동양 삼국이 주목하지 않았던 임진왜란의 네 가지 성격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의 국제적 성격이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을 인도와 천주교가 관여된 일종의 국제전쟁으로 바라봤는데 이러한 관점은 어린 시절의 경험, 그가 받은 교육과 참여한 활동, 그리고 다양한 인물과 자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의 포교적 성격이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을 포교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예수회와 그에게 주어진 임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세 번째는, 임진왜란의 정치적 성격이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이 일본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고 예수회의 적응주의 전략을 채택한 결과 형성된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임진왜란의 기술적 성격이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에 사용된 해양 기술과 화약무기 기술에 특히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포르투갈의 해상 강국 지위, 그리고 예수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임진왜란에 대한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을 형성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모두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맥락·구조·배경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다. 그러한 배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관점 형성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었고, 그것들이 작동해 임진왜란에 대한 프로이스의 관점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Structure)은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인물(Agency)에게

영향을 미쳤고, 임진왜란에 대한 루이스 프로이스의 관점을 형성했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16세기 World Power 포르투갈’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국제적·포교적·정치적·기술적 성격에 주목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일본·명은 그러한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국제적·포교적·정치적·기술적 성격에 주목하지 못했다.

2.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임진왜란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했던 것처럼, 임진왜란 당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관점을 더욱 더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는, 16세기에 아시아에서 활동한 서양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30년 남짓 머물며 선교 활동을 펼친 루이스 프로이스와 그의 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에서 활동한 다른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다.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가스파르 빌레라와 같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그 예이다. 예수회 출신 선교사 외에도, 아우구스티누스회 소속의 마르틴 데 라다, 도미니크회 소속의 가스파르 다 크루즈 등의 인물이 아시아에서 활동했다. 이런 인물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들이 남긴 기록을 탐구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들의 기록에서 조선과 관련된 사항, 조선에 대한 관점을 찾아보는 연구의 등장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루이스 프로이스의 글을 번역한 자료〉⁵⁾

- 프로이스 루이스. 강병구·왕선에 역. 1999. 『포르투갈 신부가 본 임진왜란 초기의 한국: 「일본사」 내 16세기 한국에 관한 최초의 세부적인 기술(記述)』. 서울: 주한 포르투갈 문화원.
- 프로이스 루이스. 오만·장원철 역. 국립진주박물관 역음. 2003.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서울: 부키.
- 프로이스 루이스. 정성화·양윤선 역. 2008. 『임진난의 기록: 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 파주: 살림.
- 프로이스 루이스. 박수철 역. 2017.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인물인가: 16세기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 서울: 위더스북.
- Frois, Luis. 2014. *The First European Description of Japan, 1585: A critical English-language Edition of Striking Contrasts in the Customs of Europe and Japan by Luis Frois, S.J.*(Richard K. Danford, Robin D. Gill, and Daniel T. Reff, Eds.). New York: Routledge.

5) 본 연구에서는 루이스 프로이스가 남긴 기록을 번역한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 그런데 해당 기록들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했다. 이에 따라 프로이스와 관련된 자료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기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참고문헌을 작성했다.

〈1차 자료〉

- Modelski, George. 1978. "The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the Nation-Stat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0, 2: 217-219.
- Modelski, George. 1987.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Press.

〈2차 자료〉

- 강성우. 2021. "16세기~18세기 동서양의 조우와 서양의 동아시아 이해 - 예수회의 조선과 일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7집: 182-185.
- 공미희. 2018. "일본 근대화의 계기가 된 테지마를 통한 초량왜관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제55집: 141.
- 김경태. 2018. "李睟光의 芝峯類說에 나타난 임진왜란 인식과 방어대책." 『역사와 실학』 67호: 77-105.
- 김시덕. 2012. 『그들이 본 임진왜란』. 서울: 학고재.
- 김시덕. 2012. "『서정일기(西征日記)』(상)-임진강 전투까지." 『문헌과 해석』 제58호: 93.
- 김종건. 2011. 「예수회의 동방 선교와 적응주의 선교 전략의 성립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103집: 1-2.
- 김학준. 2009.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1회): 개항 이전의 시기."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1호: 269.
- 김혜경. 2010. "16~17세기 동아시아 예수회의 선교 정책: 적응주의의 배경을 중심으로." 『신학과철학』 제17호: 21-25.
- 두셀 엔리켈. 박병규 역. 2019.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 신화'의

- 기원을 찾아서』. 서울: 그린비.
- 박상현. 2021. “명나라 지휘관의 임진왜란 기록 ‘경략복국요편’ 번역서 완간.” <연합뉴스> 12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61352000005>(검색일: 2024. 12. 23).
- 박영자. 2016. “한국에 온 첫 서양신부, 서산대사에 반해 십자가 졌을까.” <해남우리신문> 4월 14일.
<http://www.hnwo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75>(검색일: 2024. 12. 25).
- 박영호. 2003. “[세계교회사 100대 사건 -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75) 아시아 선교, 인도와 일본.” <가톨릭신문> 3월 16일.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0303160068544>(검색일: 2024. 12. 25).
- 신성민. 2022. “[칼을 든 스님] 임진왜란과 종군승.” <불광미디어> 3월 29일.
<https://www.bulkw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88>(검색일: 2024. 12. 23).
- 장상인. 2013. “일본 26성인(聖人)의 언덕에서.” <월간조선> 2월 19일.
https://monthly.chosun.com/client/mcol/column_view.asp?Newsnumb=20130219236(검색일: 2025. 1. 29).
- 장준호. 2020. 『유성룡의 『징비록』 연구』. 서울: 카모마일북스.
- 장혜진. 2019. “16세기 일본에서의 예수회의 적응과 일본의 포섭 - 대외관계사적 관점에서 -.” 『교회사연구』 제55집: 53-60.
- 장혜진. 2020. “일본 전국시대의 포르투갈 동아시아 교역과 일본 예수회의 선교활동.” 『동아시아고대학』 제57집: 109-130.
- 정해은. 2021. “『징비록』의 서술 중점과 후대 영향력.” 『국학연구』 46권: 188-189.
- 최영수. 2005. “포르투갈과 일본의 교류에 관한 연구.”

- 『포르투갈-브라질연구』 제2권 1호: 117-137.
- 현병주. 2016. 『수길일대와 임진록』. 서울: 바오출판사.
- 홍성화. 2014. “16세기 중엽 포르투갈인들이 본 동아시아 해상질서.”
『사림』 제49호: 5-22.
- 황경상. 2011. ““억압받는 타자의 삶에 주목하라”.“ <경향신문> 5월 27일.
<https://www.khan.co.kr/article/201105271920345>(검색일: 2024.
11. 27).
- Modelski, George and Sylvia Modelski. 1988. *Documenting Global Leadership*. London: Macmillan Press.

말을 통해 미래를 읽다: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과 중국의 대응 규슈 국립박물관

이해린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사 졸업

I. 들어가며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되었다. 대중국 60% 관세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그라 향후 4년 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지금까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하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던 동안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을 두고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비중이 늘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이 단어는 ‘주요 흐름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일정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학술적인 용어였다. 예를 들어, ‘그린 에너지 산업’의 발전 현황은 기존 에너지 산업과 ‘얼마나 독단적일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decouple”이라는 동사를 쓰는 일이 드물지 않게 보였다.

디커플링이 국제관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다. 미국의 무역제조업정책국 국장 피터 나바로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디커플’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이후 ‘디커플링’은 미국이 중국과의 상호 관계를, 그 중에서도 무역에서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형용하는 명사로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2018년에서 벌써 거진 7년이 흘렀다. 트럼프의 복귀는 ‘디커플링’의 재림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2018년의 디커플링과 2025년의 디커플링은 같지 않을 것이다.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는 방향도, 그 결과도 다를 것이다. 두 가지 중대한 변화가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첫 번째는 단연 플레이어의 변화다. 트럼프 대신 나타난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는 트럼프와는 다른 내러티브를 사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다. 바이든의 디리스킹 전략이 우선적으로 판을 뒤흔들었다.

두 번째 변화는 게임 세팅의 변화다. 2018년과 2024년 사이에 기술은 발전했다. 2018년에도 반도체는 물론 중요했지만, 그 사이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틀을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키를 쥐게 되었다. 다시금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2025년의 전쟁 품목은 2018년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7년 동안 리뉴얼된 게임에 7년 전의 플레이어가 입장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미국과 중국의 ‘게임’은 앞으로의 4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그게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전체에는 어떠한 결과를 불러 일으킬까?

미래를 예측하는 건 항상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가 처음으로 주장했던 ‘디커플링’ 이후, 세계정치가, 더욱 정확하게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상태로 도달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

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다.

이 글은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크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반으로 향후 미중 관계와 세계정치의 변화 양상을 그려내보려 한다.

Ⅱ. 디리스크 전략

1. 디리스크의 시초

이 글이 제시하고 있는 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는 단연 미국과 중국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플레이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세상을 보여주듯, ‘디리스크(Derisking·탈위험)’ 전략을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미국도 중국도 아니고, 유럽 연합이다. 그 곳에서 우리는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크’이라는 단어를 처음 발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2023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통령 폰 데어 라이엔은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디리스크’이라는 단어를 중국과의 관계 변화를 서술하는 데에 쓴다 (Von der Leyen 2023).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과 같이 일해야 하고 무역해야 합니다. 특히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땐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크’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환경적 목표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야기로도 들리지만, 후반부의 한 마디가 핵심이다.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대중 경제 정책인 ‘디커플링’에 확실하고 명확한 ‘안 할게’를 외쳤다. 지금 당장 중국을 유럽의 무역망에서 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디리스크’는 유럽이 완전히 중국과 협력을 버릴 수 없다는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다. 2023년 3월, 유럽연합은 재차 ‘디리스크’를 입에 담는다. 이번에는 포커스가 환경이 아니고 경제다(MERICs 2023).

중국의 국가주도적 자본주의 시스템이 빚어낸 왜곡은 유럽과 중국의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 이는 우리가 ‘디리스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중국과 협력했을 때 야기되는 불균형한 경제 경쟁을 의식한 발언이다. 중국 국영기업(SOE)들이 너무 막강하니 유럽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같은 날 폰 데어 라이엔은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밀접한지, 남중국해 영토 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얼마나 큰 군사적 위협을 주고 있는지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중국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주고 있는지 설명한다(MERICs 2023). 그러니 폰 데어 라이엔이 주장한 ‘디리스크’는 중도적인 성향이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중국과 현재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를 통해 유럽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연 유럽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공정한’ 필드다. (폰 데어 라이엔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a level playing field with diversification”이 되겠다.)

이렇듯 디리스크িং은 디커플링과 다른 전략이다. 디리스크িং에는 고의적인 모호함이 있다. 디커플링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나 중국이 만드하고자 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동조하지 않음’을 천명하지만 디리스크িং은 그저 중국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의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의미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험’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경계’할 것인지 무척 모호하다.

또한 디리스크িং은 다면적이다. 중국과 한 편으로는 협력하면서 한 편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만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2. 디리스크িং의 확장: 미국의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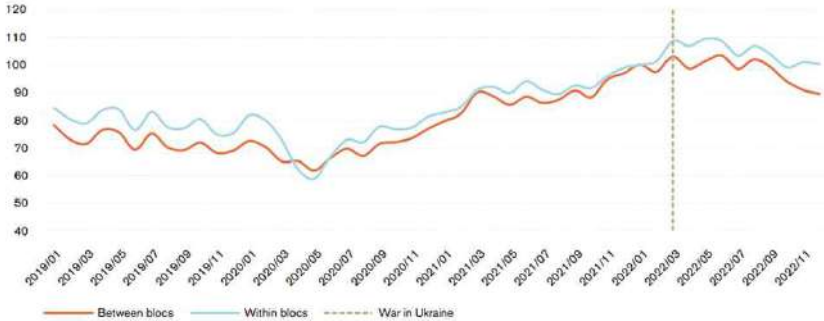
미국이 ‘디리스크’이라는 개념을 차용함에 따라 디리스크িং은 한 층 더 중요한 전략으로 발전한다. 2023년 4월 27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디리스크িং이라는 아이디어를 언급한다(Sullivan 2023).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대통령이 최근 말한 것처럼,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닌 다양화와 디리스크িং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필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남용에는 맞설 것입니다.

미국이 유럽의 ‘디리스크’ 전략을 수용한 가장 큰 까닭은 디커플링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Figure B.9: Trade within and between hypothetical geopolitical blocs, January 2019 to December 2022

Index January 2022=100



Source: WTO Secretariat calculations based on Trade Data Monitor.
Note: Seasonally adjusted series.

[그림 1] WTO가 조사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지정학적 블록 내/블록 간 무역 지수

2023년 WT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무역지수가 대폭 꺾인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지정학적 블록 간의 무역이 지정학적 블록 내의 무역을 제친 것을 볼 수 있다(World Trade Organization 2023). 중국을 전세계적 무역 사이클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전략이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종료되는 2021년 1월까지 떨어진 무역 지수는 복구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지정학적 정치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공급망이나 무역 네트워크를 갈라놓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에게는 디커플링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정책적 지향점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대내적으로 해석하자면 트럼프와는 다르다고 어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해석하자면 디커플링에 회의적인 유럽 역시 동조할

수 있는 정책적 지향점을 찾아야 했다.

디커플링은 미국 혼자서 중국을 단절하자고 나선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다. 가치 동맹으로 연합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부 중국을 배제해야 중국이 없는 글로벌 공급망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럽이 용납할 수 있는 선에서 중국을 배제하라면, 유럽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미국의 경제를 지키면서도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의 지지를 얻으며 트럼프와는 다른 지향점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설리번의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Sullivan 2023).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날 무역 정책은 단순한 관세 인하 이상의 것이 되어야만 하며, 또 우리의 국내 및 대외 경제 전략에 완전히 부합해야만 합니다.

설리번은 어느 부분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 중국과 협력할 것인지 명시한다(Sullivan 2023).

경제적 융합은 중국이 자신의 지역에서 군사적 야심을 드러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 “중국발 쇼크”는 우리의 국내 제조업에 크고 쉽게 극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혔고 [...]

[...] 우리는 ‘좁은 마당, 높은 담’ 정책을 통해 우리의 기초 기술을 보호할 것입니다. [...] 우리는 중국에 대한 최신 반도체 기술 수출에 신중하게 맞춤형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본적인 국가 안보 의제를 전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기후 문제, 거시경제의 안정성, 의료 안보, 식량 안보 등의 전 세계적인 도전에 함께 맞설 수 있고 또 그래

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가져다줄 수 있는 리스크를 경계하지만 동시에 비전통적 안보 의제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는 창구를 열고 있다. 디리스킹은 유럽에서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탈바꿈했다. 미국은 ‘디리스킹’이라는 단어의 모호성을 줄이고 다층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우방국들에게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다. 지금 당장 중국과 모든 끈을 놓아버리는 건 어렵지만, 적어도 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을 빼보자는 거다. 설리반이 꽤나 직접적으로 말한 것처럼,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제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이 미국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을 제쳐야만 한다.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놓지 않는 것은 미국의 디리스킹을 채택하며 이뤄내야 하는 제1의 목표다.

Ⅲ. 디리스킹의 성과

1. 미국의 맞춤형 규제

그렇다면 디리스킹은 제 역할과 쓸모를 다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제지한다는 목표를 위해 바이든의 미국은 4년 내내 공을 기울였다. 다음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발표한 주요 정책이다. 단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머물렀던 정책이 반도체 업계 전반에 대한 제조 장비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철저한 규제 체계로 확대되

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York 2024).

날짜	부서	내용
2021.12.16.	미국 상무부	‘중국의 군대 현대화’를 도운 혐의로 반도체 제조 회사를 포함한 34개의 중국 기업 제재리스트에 등록
2022.10.7.-13.	미국 상무부	미국산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수출 규제 시행 -ASML은 이에 따라 중국 고객에 서비스 중단 -TSMC는 중국 내 사업장에서 미국산 부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1년치 라이선스 획득
2023.8.9.	바이든 미 대통령	미국인이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특정 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 (아웃바운드 투자 프로그램) -반도체 -양자 정보 기술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2023.10.17.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에 관한 세 가지 추가 규칙 발표 -규칙 1: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받는 국가 또는 지역에 본사를 둔 모든 회사에 반도체 칩 수출을 위한

		라이선스 요구 -규칙 2: 더 많은 종류의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예정 (엔비디아 등 주요 칩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 -규칙 3: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중국 법인은 제재리스트에 추가. 이러한 법인을 위해 칩을 생산하는 기업 역시 산업안보국에서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취득 필요
2024.9.5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임시 규율 발표 -양자 컴퓨팅이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및 기타 국가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라이선스는 ‘거부를 전제로’ 검토 -그러나 재래식 무기와 이중 용도 상품의 수출에 한한 바세나르 체제 참여국¹⁾은 ‘승인 가정’을 전제로 라이선스를 검토받게 될 것
2024.9.13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관세 조치 최종 확정 (301조 관세 확정)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100% 인상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율 50% 인상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부품, 중요 광물, 철강, 알루미늄, 마스크, 해상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한 관세율 25% 인상
2024.12.3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140개의 기업을 제재리스트에 등록하고 반도체 칩 수출 통제 확대 (특히 첨단 노드 회로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조 장비 통제)

[표1]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 (~2024년 12월)

그러나 견제만 이어진 건 아니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과 중국은 대화도 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2021년 11월 10일 COP26의 마지막 날 미중 공동 기후 행동 선언을 한 것부터 시작하여, 환경 의제는 2021년 11월 15일 처음으로 온라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도 빠지지 않았다. 2024년 9월 4일부터 6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늘리던 그 시기에도 미국은 중국과 기후를 매개로 한 대화 채널을 열어 놓았다.

-
- 1)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등 42개국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 특사가 미중 기후 회담을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한 것을 예로 들겠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수뇌회담을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의 대화 채널이 거의 전무했던 것과는 확실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이루어진 대중국 견제는 동일하게 디리스크링 전략을 내세운 유럽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었다. 2023년 7월 25일 통과된 반도체 법(Chips Act)가 그 결정적인 예나 다름 없다(European Union 2023).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유럽연합 점유율을 10%에서 20%로 높인다는 내용의 법안은 유럽이 ‘디리스크링’을 외치며 쟁취하고자 했던 ‘공정한 필드’를 만든다는 목표에 충실했다.

미국은 디커플링 전략에서 나타났던 두 가지 허점을 모두 보완한 셈이다. 비현실적인 절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점진적으로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유럽연합이 겨냥하는 목표와 꼭 닮아 있었으므로 동맹국에서의 반발도 줄일 수 있었다.

그렇기에 2024년 10월 23일 브루킹스 연구소에 돌아온 제이크 설리번은 자랑스럽게 디리스크링 전략의 ‘성공’을 선포했다(Sullivan 2024).

[...] 현재 미국은 5개의 선진적인 메모리 칩 제조업체가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2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길러내고 있으며, 차세대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가 바로 여기 미국에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만 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해낸 것입니다.

현재, 지정학적 라이벌 사이에서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무역이 전무했던 냉전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정학적 맥락에 있기 때문에 타협해야만 합니다. 즉, 국가 안보와 전략적 경쟁을 정의하

는 가장 민감한 기술만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잉입니다.

2. 중국의 대응

미국은, 적어도 바이든 정부는 디리스크잉 전략에 대해서 고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말 미국의 디리스크잉 전략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시선을 반대로도 돌려야 한다. 중국은 디리스크잉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19년부터 중국은 꾸준히 디커플링 전략을 ‘탈구단연(脱钩断链·관계를 끊고 연결고리를 부수다)’ 혹은 ‘탈구(관계를 끊다)’로 치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탈구’를 언급한 것은 2024년 3월 27일이다. 워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난 그는 이렇게 발언한다(国际在线 2024).

[...] 역사의 큰 물결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탈구단연’은 출구 없는 길이며, 개방하며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중국의 외교부 부장 왕이 역시 ‘탈구’를 비슷하게 해석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3월 8일, 중국의 국가의사 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왕이에게 묻는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한 왕이의 대답은 이러하다(新华网 2019).

중국과 미국이 ‘탈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탈구’하는 것은 기회와 ‘탈구’하는 것이고 미래와 ‘탈구’하는 것이며 모종의 의미로는 세계와 ‘탈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협력은 중미관계의 주류이며 양국 지도자의 공통적인 인식일 뿐만 아니라, 쌍방 각계의 일관되고 일치된 의견입니다.

디커플링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매우 알기 쉽다. ‘탈구’는 협력의 반대어다. 그리고 중국과 협력하지 않기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계의 흐름과 역행한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上观 2020). 디커플링의 한계는 설리번이 연설에서 이미 인정도 했고, WTO의 조사 결과로 인해 사실로 드러난 바도 있으니 이러한 중국의 인식이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

‘디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떻게? 디커플링과 ‘탈구’는 비교적 빠르게 번역이 됐다. 그러나 ‘디리스크’를 부르는 말은 정말 다양하다. ‘위험 최소화(去风险)’, ‘중국 최소화(去中国化)’, ‘탈구(脱钩)’가 모두 디리스크 전략을 부르는 데 쓰인 적 있다. 왜 디커플링과 다르게 중국에서 디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말은 없을까? 그 이유는 중국의 정책 인지에 있다. 중국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크가 다른 전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2023년까지만 해도 디리스크를 왕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의 ‘디커플링’ 개념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인지하는 일이 잦았다. 2023년 5월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미국의 협박외교와 그 폐해>를 보면 2023년 3월 설리번이 발표한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협박외교(胁迫外交)’의 창시자로 오랫동안 경제제재, 군사위협, 기술봉쇄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전세계의

발전을 저해한다(中国外交部 2023). 그와 비교하여 중국은 국가 크기에 관계없이 평등을 추구하며, 군사동맹을 강요하거나, 이념을 수출하거나 무역전쟁을 도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이로써 중국은 2023년 바이든 지도부가 발표한 ‘디리스크킹’을 협박외교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위험 최소화’라는 말이 더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24년부터다. 2024년 2월 17일 왕이는 뮌헨안보회의에 출석해서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한다(观察者网 2024).

‘위험 최소화’라는 명목으로 ‘중국 최소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 ‘넥스트 차이나’는 여전히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미국 국무부 장관인 블링컨과 왕이의 대화에서는 중국이 보는 디리스크킹과 디커플링 사이의 등치가 더욱 잘 드러난다.

‘위험 최소화’는 ‘중국 최소화’와 같고, ‘좁은 마당에 높은 담’을 세우는 것은 ‘중국에 대한 탈구’를 하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시도는 최종적으로 미국이 스스로 ‘반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반서(反噬)’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반대로 깨물다’라는 뜻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음해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다. 미국이 스스로를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는 내러티브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탈구’ 정책에 가해졌던 비판이 동일하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4월 26일에는 중국이 정확히 미국의 ‘어떤’ 정책적 결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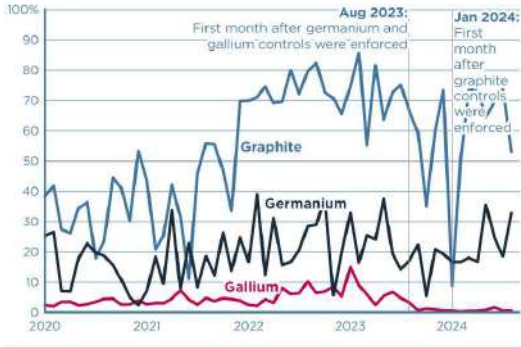
두고 ‘반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판단하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 다시 한 번 블링컨과 만난 왕이는 이렇게 말한다(中国外交部 2024).

미국 무역법 301조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중국 인민이 발전할 권리는 박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 무역, 기술에 가하는 압박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포위하여 억제하는 정책이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중국이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고, 중국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에서 나온다. ‘탈구’와 달리 ‘위험 최소화’ 정책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즉, 중국은 미국이 디리스킹과 디커플링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묵살하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이 관세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트럼프의 방식과는 다른데도 말이다.

China's export controls on critical minerals have not yet significantly reduced US supplies from China

US import shares from China for export controlled critical minerals, Jan 2020-Aug 2024



[그림2] 미국의 광물 수입 중 중국의 비중 변화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점진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압박해왔다. 여태껏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반도체 제조 장비는 수출할 수 있게 허락했으나 2024년 12월 23일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더욱 포괄적인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꾸준히 반발해왔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대미 광물 수출 규제를 보복성으로 발표하곤 했다. (2023년 7월 3일에도, 2024년 12월 3일에도 그랬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 제지는 미국 경제에 그렇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갈륨은 보통 레이더, 위성, 전자레인지, LED 등에 사용되는데 미국은 갈륨 웨이퍼의 조달에 있어서 원래도 중국에게 그리 많이 의존하는 편이 아니었다. (수출 통제 이전 미국의 갈륨 웨이퍼 총 수입 중 4.8%만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원자재 수출 규제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더 많은 원자재 수입 경로를 탐색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분석 역시 존재한다(Hendrix 2024).

한 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디리스킹 전략에 대한 대미 보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국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사이의 차이점을 그다지 강조하거나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디리스킹이 실제로 중국을 제약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아직 중국에게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서’라는 말도 다시 들린다. 중국이 미국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다.

3. 프레임워크의 변화

미국은 디리스킹 전략을 성공이라 평가한다. 유럽은 디리스킹 전략에 동조한다. 중국은 디리스킹 전략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길 바라지만 그것을 막을 뾰족한 수도 없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완전한 곤경에 빠진 것은 아니다.

중국은 자국과 외교 관계에 있는 나라에 ‘동반자 관계(伙伴关系)’라는 단어를 붙여서 형용한다. 이는 1960년대 중국이 스스로를 제3세계의 일원으로 천명하면서 ‘비동맹원칙(不結盟原則)’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동맹을 맺지 않는 대신 각기 다른 국가들과 각기 다른 영역의, 각기 다른 깊이를 가진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것이다(趙紀周 2010).

이름	국가
신시대전면전략협업동반자관계 (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	러시아
전천후전략협조동반자관계 (全天候战略合作伙伴关系)	파키스탄(2005)
전천후전략동반자관계 (全天候战略伙伴关系)	에티오피아(2023), 베네수엘라 (2023)
전천후전면전략동반자관계 (全天候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	벨라루스(2022), 헝가리(2024)
신시대전천후전면전략동반자관계 (新时代全天候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	우즈베키스탄(2024)
전면전략협조동반자관계 (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모잠비크, 콩고, 나미비 아, 짐바브웨, 기니, 케냐, 탄자 니아, 몰디브, 앙골라, 이탈리아 (2024)
전략협조동반자관계 (战略合作伙伴关系)	인도, 한국, 아프가니스탄, 스리 랑카
전방위전략동반자관계 (全方位战略合作伙伴关系)	독일, 벨기에(전방위우호협조동 반자관계), 싱가포르(전방위고품질 전망성동반자관계)
전면전략동반자관계 (全面战略伙伴关系)	인도네시아, 브라질, 오스트레일 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EU, 영 국(21세기전지구전면전략동반자 관계)
전략동반자관계 (战略伙伴关系)	아세안, AU, 캐나다, 아랍에미 리트연합, 칠레, 카타르 등

[표2] 2024년 기준 중국의 ‘동반자 관계’ 나라 정리



[그림3] 2020년 기준 중국의 ‘동반자 관계’ 나라 정리

‘동반자 관계’는 무척이나 다양하다. ‘전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며, ‘전략’이 없이 ‘협조’라고만 써져 있는 경우에는 무역이나 경제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동반자 관계’에 붙여진 복잡하고 다양한 이름은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赵纪周 2010).

중국 정부는 어떤 ‘동반자 관계’가 가장 견고한지에 대한 공식적인 등급을 설명한 적은 없다. 러시아와 중국이 2014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전면전략협업동반자관계’가 가장 높은 등급일 것이라고 추측되나 그것 역시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강화된’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만이 얻을 수 있는 칭호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수식어가 있다. 바로 ‘전천후’ 동반자 관계다(中国外交部 2015).

‘전천후’란 이름이 알려주는 대로 어떤 날씨가 기후에도 상관 없다는 뜻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변화가 닥쳐와도 관련 없이 전략적으로 협조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전천후전략동반자관계’는 파키스탄만을 특별히 지칭하는 동반자 관계였다. 15년이 넘도록 파키스탄만 가지고 있던 ‘전천후’ 동반자 관계는, 2022년 벨라루스를 기점으로 갑자기 더 많은 국가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다지는 데에 사용된다. 2022년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에티오피아,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2024년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과의 ‘동반자 관계’를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관계 없는 견고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재정의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즉, 중국이 아주 이르게는 2022년, 아주 늦어도 2023년부터 세계정세가 변했고 또 더 많이 급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유라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아울러 ‘전천후 동반자 관계’로 묘사되는 중국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에서는 미국의 ‘디리스킹’ 공세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려는 의도가 보인다.

IV. 나가며

미국의 디리스킹은 중국이 뻗어나가는 것을 막았다. 특히 반도체 칩과 같이 미래 세계 산업, 나아가 세계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산업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해도 이러한 기조는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내각의 새로운 국무부장 마르코 루비오는 2024년 9월 9일

“중국이 만든 세상: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9년 후”라는 리포트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Rubio 2024).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대의 산업 기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시장 왜곡 보조금, 전략적 계획을 통해 베이징은 이제 21세기 지정학적 패권을 좌우할 많은 산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중국의 도전을 극복하며, 다가올 세대를 위해 자유의 횃불을 계속 밝히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루비오는 중국이 전기차, 에너지 발전(특히 태양광 발전), 고속 철도, 조선업에서는 목표치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레거시 반도체 칩 생산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며 고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성장과 그를 경계한 시선이 트럼프 내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탈바꿈할지 엿볼 수 있는 책이 있다. 트럼프 내각의 국무차관 앨브리지 콜비가 2021년에 쓴 “The Strategy of Denial”이다.

미국의 핵심 국익은 여타 국가가 세계의 주요 지역에 대한 패권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으며, 그 국익에 대한 주된 위협은 아시아의 중국이다. [...] 아시아야말로 미국이 의지와 국력을 집중하고 차별적 신뢰를 극대화하고자 할 곳이어야 한다.

이 책에서 콜비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동맹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olby 2021). 즉, 현재까지 미국의 기본적인 기조가 가치 동맹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콜비의 생각은 좀 더 효과적인 세력 균

형 전략을 위해 포기할 국가에서는 발을 빼라는 진단이다.

미국 부통령 J.D. 밴스의 생각은 이보다도 더 파격적이다. 2024년 7월 17일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한 그의 연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의 정의를 잘 보여준다(Vance 2024).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 비록 이상과 원칙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을 위해 싸우지 않지만, 그들의 집을 위해서는 싸울 것입니다. [...] 우리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미국 시민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도자들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밴스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라 “피와 땅”으로 정의한다. 세대에 걸쳐 ‘미국’을 지킨 사람들이 진정한 미국인이라는 그의 발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지킨다.

콜비와 밴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국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콜비의 미국은 전략적으로 몇몇 지역에서 후퇴를 할 뿐, 최종 목표는 여전히 패권국으로 남는 것이다. 중국을 새로운 패권으로 절대 떠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세계의 질서를 짜는 나라로 남기 위해서 ‘세력 균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역’의 중요성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밴스의 미국은 다르다. 밴스의 미국은 강대한 미국, 미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이다(전재성 2025). 그의 미국 속에 ‘미국 외를 고려하는 세상’은 없다.

마르코 루비오가 인정하는 것처럼, 새로운 트럼프 내각에서도 중국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그러나 이 라이벌을 얼마만큼 견제할 것인가? 디리스킹은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진 않았지만, 중국이 더 성

장하도록 놔두지도 않았다. 그에 대비하듯 중국은 자신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 때 미국이 지향하는 바가 ‘패권국’인지, 아니면 ‘강대국’인지에 따라 미국의 행보는 달라진다. 미국은 과연 자신의 가치 동맹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할 것인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네트워크 역량이 커질 수 있는 여지를 용인할 것인가?

둘 다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미국 보호주의를 강력하게 외치는 트럼프의 주장이 ‘공정한 필드’의 구축을 바라는 유럽의 소망과 양립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 중국 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까지 제약을 가하려 한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디커플링 전략이 디리스킹을 낳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중국은 조심스럽고 간접적인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를 미국과의 양자 담판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까운 타국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쌓는 것은 내수 불안정을 안고 있는 중국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접전을 조금 더 세계적인 관점으로 넓히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19년과 확연히 다르다. 중국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어떻게 미국을 따라잡느냐는 문제다. 미국이 이미 중국을 배제하는 큰 틀을 짠 상태에서 중국이 자력으로만 경쟁력 있는 첨단 반도체 시장을 만들어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이 경쟁의 승자를 결정지을 것이다.

디리스킹이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이유는 이미 미국이 상응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들을 해치지 않고 도리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명분과 함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국의 ‘전천후 전략’

역시 기술 독려가 얼마나 빠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고 미국이 자신의 목표를 강대국으로 결정짓는다면 세계의 패권국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이제 이 질문의 답은 제3자들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고, 또 그것을 중국이 얼마만큼 상쇄시킬 수 있는가. 제3자들은 어떤 계산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까.

이것이 바로 디리스킹이 지난 4년 간 만들어낸 새롭고 복합적인 세계 질서의 모습이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지만 이미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2018년의 디커플링이 중국과의 단순한 단절을 의미하고 주변 국가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 2025년의 세계는 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인 경쟁의 장을 열고 있다. 미국이 디리스킹을 통해 동맹국들과 쌓아올린 기술 장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 역시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넓혀나가며 파훼법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나 중국마저도 서로와의 완전한 단절이나 무조건적인 협력을 시도할 수 없다.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시작될 새로운 4년은, 이러한 변화된 게임의 규칙 속에서 펼쳐질 것이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Colby, Elbridge. 2021. *The Strategy of Denia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ullivan, Jake. 2024. "Remarks by APNSA Jake Sullivan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24. Washington D.C., U.S.A.
- Sullivan, Jake. 2023.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The Brookings Institution, April 27. Washington D.C., U.S.A.
- Rubio, Marco. 2022. "Putin's War and the Threat from Communist China: An Address by Senator Marco Rubio." The Heritage Foundation, March 29. Washington D.C., U.S.A.
- Vance, J.D., 2024. "Address Accepting the Vice Presidential Nomination at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in Milwaukee, Wisconsin."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July 17. Wisconsin, U.S.A.
- Von der Leyen, Ursula. 2023. "Davos 23: Special Address by Ursula von der Leyen,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World Economic Forum, January 17. Geneva, Switzerland.

[2차 문헌]

- Bhole, Omkar. 2023. "China's "Partnerships" with the World". <https://orcasia.org/article/347/chinas-partnerships-with-the-world>. (검색일: 2024.12.3.).
- European Union. 2023. "European Chips Act".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chips-act>. (검색일: 2024. 11. 29)

- Hamilton, Daniel. "The EU has a playbook to de-risk from China. Is it working?" *The Brookings Institution* September 3.
- Hendrix, Cullen. 2024. "China's export controls on critical minerals aren't starving the United States—at least so far".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ctober 31.
- Liu, Kerry. 2023. "America's decoupling from China narrative: development,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Vol 22.
-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2023. "Von der Leyen calls for de-risking EU-China relations in speech to MERICS". March 30.
- 〈The Brookings Institution〉. 2023. "Reactions to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Brookings speech." March 2.
- World Trade Organization, 2023. "World Trade Report 2023 – Re-globalization for a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 York, Erica. 2024.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Trump Trade War." *Tax Foundation* December 28.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riffs-trade-war/> (검색일: 2024. 12. 31)
- 国际在线. 2024. "习近平：“脱钩断链”没有出路 开放合作是唯一选择." 3月27号.
<https://baijiahao.baidu.com/s?id=1794680181538821547&wfr=spider&for=pc> (검색일: 2024. 12. 2)
- 观察者网. 2024. "王毅：谁试图以“去风险”之名搞“去中国化”，谁就将犯下历史错误." 2月17号.
<https://baijiahao.baidu.com/s?id=1791158162579039348&wfr=spider&for=pc> (검색일: 2024. 10. 19)
- 上观. 2020. "王毅：“脱钩”“筑墙”只会作茧自缚，重回孤立主义、保护主义早已不合时宜." 11月20号.

<https://export.shobserver.com/baijiahao/html/313459.html> (검색일: 2024. 11. 15)

《中华人民共和国和巴基斯坦伊斯兰共和国关于建立全天候战略合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2015. 4月20号.

中国外交部. 2023. "美国的胁迫外交及其危害." 5月18号.

https://www.fmprc.gov.cn/web/wjbxw_new/202305/t20230518_11079585.shtml (검색일: 2024. 10. 29)

中国外交部. 2024.

"王毅同美国总统国家安全事务助理沙利文举行战略沟通." 8月28号.

https://www.fmprc.gov.cn/web/wjzbz_673089/xghd_673097/202408/t20240828_11480627.shtml (검색일: 2024. 12. 2)

〈新华网〉. 2023. "王毅会见美国总统国家安全事务助理沙利文." 10月28号.

<https://baijiahao.baidu.com/s?id=1780968493488255047&wfr=spider&for=pc> (검색일: 2024. 12. 2)

〈新华网〉. 2019. "王毅：与中国“脱钩”，就是与机遇“脱钩”，与未来“脱钩” 3月8号.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lh/2019-03/08/c_1124208788.htm (검색일: 2024. 10. 8)

赵纪周. 2010. "谈中国的伙伴关系及其类型". 7月17号.

http://ies.cass.cn/wz/mtcf/201707/t20170717_3581891.shtml (검색일: 2024. 12. 26)

박찬진, 2024. "미국의 대중국 관세장벽 강화와 중국의 대응, 한국에의 시사점", 1-7.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전재성, 2025. "트럼프주의 외교전략과 세계질서의 미래, 한미관계," 한국외교 2025 전망과 전략 1. 서울: EAI 동아시아연구원.

정하용, 2023.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중(對中)정책: 배제(decoupling)와 관리(de-risking)." 〈ifs Post〉 8월 2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국제정치적 동학: 미국의 관점에서 본 일본과 소련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정명현

서울대학교 외교학 전공 석사 재학

I. 들어가며

1945년 8월 9일, 몸집 큰 폭탄을 하나 실은 B-29 폭격기가 먹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 도시, 나가사키를 포착했다. 폭탄 “팻맨”은 투하 신호와 함께 나가사키 중심부에서 약간 위쪽에 자리한 곳에 떨어졌다. 섬광과 함께 거대한 버섯구름이 나가사키 상공을 뒤덮었고, 고열의 열 복사선은 존재하는 것을 모두 녹이고 파괴했다. 이날 실시된 공격으로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폭격 이후 외상·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기에 실제 인명 피해는 더 컸다.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도 원폭 공격을 당한 일본은 8월 15일 항복을 선언했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조인하며 태평양 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그림 1] 착륙 전 촬영한 규슈 상공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기 전의
하늘이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현재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된 자리에는 원폭 투하 지점을 알리는 기념공원과 여러 추모비들, 그리고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 자리하고 있다. 원폭자료관에서는 원폭 투하 전 나가사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건들과 투하 후의 참상을 드러내는 건축물들을 대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개발 과정과 이로 인한 피해를 담은 전시를 구성하여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희구하는 마음이 전 세계에 전해 지기를 바라는 일본인들의 바람을 엿볼 수 있다.



[그림 2] 원폭자료관 전시실 입구에 놓인 시계
시계가 원폭이 투하된 시점에 멈춰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시각에서 나가사키 원폭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오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하나는 관련 자료의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수단의 적절성이다. 먼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기로 한 이유를 상세하게 담은 정부 문서가 남아있지 않다. 상황의 긴박했기에 그러했을 수도 있지만, 일본과의 전쟁에서 전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문서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의아하다.

또한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폭을 반드시 투하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원폭을 투하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일본의 저항의지를 꺾기 위해 원폭을 투하했다면, 사후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당시 일본은 이미 전쟁을

수행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항복을 빨리 받아 내기 위함이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첫 번째 원폭을 맞았음에도 항복할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원폭을 투하하여 수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폭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가 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바라볼 수는 없는가? 미국과 일본이라는 양자관계가 아니라 당시 국제정치적인 동학을 고려한 시각에서 나가사키 원폭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이러한 고민에서 미국의 나가사키 원폭 투하 결정에 소련의 지분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차 대전에서 소련은 미국과 같은 연합국으로서 일본을 상대했으나 전후에는 갈라서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이 패망시킨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 소련을 견제하는 방패로 삼는다. 그러므로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 문제를 논함에 있어 소련을 배제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일본과 소련을 각각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본다면 나가사키 원폭 투하 과정에서 미 정책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관한 국제정치학적 동학을 자세히 분석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 나가사키 원폭을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한 연구도 있었으나, 연구자들은 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같이 묶어 미국의 원폭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했다(Cummings 1999; Sherwin 2000). 미국과 소련이 일본의 항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으나, 이 또한 나가사키 원폭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는 않았다(Alperovitz 1965; Alperovitz 1995; Asada

1998; Bix 2005; Hasegawa 2005; Maddox 1994; Frank 1999). 이에 이 보고서는 이미 진행되었던 미국의 원폭 투하 연구를 보충함과 동시에 개별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국제정치적 동학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핵무기에 관한 의사결정이 내려진 임시위원회(Interim Committee)의 논의를 통해 위원회 참석자들이 일본과 소련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살펴본다. 그런 후 위원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일본과 소련에 대해 남긴 다른 기록에 주목하며, 원폭 투하 과정 시 일본과 소련에 관하여 미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부분을 고려했는지 추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생각이 실제 전쟁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며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II. 임시위원회(Interim Committee)

1. 위원회의 결성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알 필요가 있다. 원폭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임시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임시위원회는 당시 전쟁부(Department of War) 장관이었던 헨리 스티imson(Henry L. Stimson)이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만든 위원회였다. 해당 위원회는 전쟁 이후 핵 관리를 담당하는 상설 기관으로 자리를 잡기 전 핵무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임시’라는 명칭이 이름에 붙게 되

었다(Nuclear Files 2023).

첫 만남이자 비공식 회의는 1945년 5월 9일에 이루어졌다. 이날 진행된 회의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모 두발언에서 스티븐슨은 핵무기의 전시 통제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임시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보고와 건의 내용이 자신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임을 밝혔다(Nuclear Files 2023). 이는 위원회가 핵무기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에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크게 과학계, 외교계, 군사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과학계에는 버니바 부시(Vannevar Bush), 칼 콤톤(Karl T. Compton), 그리고 제임스 코난트(James B. Conant)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전시 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과학연구개발국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OSRD) 혹은 그 산하에 소속되어 있었다. 여기서 부시는 개발국의 총괄을 맡고 있었 으며,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무기의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외 교계에는 대통령 특사였던 제임스 번즈(James F. Byrnes)와 국무부 차관보 윌리엄 클레이튼(William L. Clayton)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 히 전임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정부에서도 요직을 맡아 왔 던 번즈는 포츠담 회담이 있기 전 트루먼의 요청을 승낙하여 국무부 장관을 맡아 트루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으로 군사계 에는 스티븐슨을 포함하여 해군부 차관 랄프 바드(Ralph A. Bard), 그 리고 전쟁부 장관 특별보좌관이자 위원회의 부의장이었던 조지 해리 슨(George L. Harrison)이 있었다.

후에 임시위원회는 미 육군을 책임졌던 육군참모총장 조지 마셜 (George C. Marshall) 장군, 맨해튼 계획(Manhattan Project)의 총 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스(Leslie R. Groves) 장군과 같이 회의 진

행에 필요한 인물들을 초청하며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렇다고 과학, 외교, 군사라는 위원회의 기본적인 골격이 바뀌지는 않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참석자들은 각자의 시각에서 핵무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도출했다.

2. 일본과 소련에 관한 논의

임시위원회의 논의가 대통령의 시각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회의 과정에서 나온 일본과 소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원폭 사용에 관한 미국의 국제정치적 동학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일본에 관한 논의가 어떠했는지 보자. 일본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회의는 1945년 5월 31일과 6월 1일, 두 차례 진행되었다. 5월 31일 회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자리였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모두가 동의한 지점은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이 사전 경고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원폭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코난트 박사는 이에 동의하면서 표적이 군수공장 혹은 공장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Nuclear Files 2023).

하지만 원폭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원폭을 동시에 다발로 사용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로브스는 이에 반대했다. 그는 오펜하이머의 방식이 순차적 사용에 비해 폭탄 투하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 것이고, 이러한 작업이 자칫 성급하게 진행되어 비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미 공군이 진행하고 있는 공중폭격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Nuclear Files 2023). 지금까지 개발된 적이 없는 원폭을 다른 무기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원폭의 중요성과 파괴력이 그만큼 컸음을 의미한다.

이튿날인 6월 1일에서 번즈를 포함한 임시위원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을 ‘하루속히(as soon as possible)’ 진행할 것을 전쟁부에 요구했다(Nuclear Files 2023). 이러한 요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전쟁을 단시간에 끝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6월 16일 임시위원회 과학계 인사들의 성명에서 잘 드러난다. 오펜하이머를 필두로 한 이들은 스티븐 장관에게 핵무기를 ‘즉시(immediate)’ 사용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핵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무가 있음을 제시했다(Nuclear Files 2023). 당시 미국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자국의 인적·물적 손실이 막대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빠르게 끝내기를 원했다. 더하여 개발 중이었던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기에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는 소련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자. 임시위원회에서는 적국인 일본이나 독일뿐만 아니라 연합국인 영국, 그리고 소련과의 관계도 논의되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위원회가 소련을 다소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5월 31일 회의에서 소련에 대한 위원회의 시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면 소련 문제를 다룬 장을 별도로 두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핵무기 통제와 국제적 협력의 문제에서 소련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paramount concern)’라고 생각했다. 핵 개발에 관한 의견에서는 과학계와 외교계의 의견이 갈렸다. 오펜하이머는 소련 과학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만, 번즈는 핵 관련 기술을 소련과 공유하기를 꺼렸다. 그럼에도 핵 개발을 서두름으로써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번즈의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이들은 소련과의 협력 가능성을 부정하지

는 얹으면서도 소련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Nuclear Files 2023).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소련을 경계하는 임시위원회의 태도를 찾을 수 있다. 기술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진행된 6월 1일 회의에서는 소련의 기술 발전 잠재력이 논의되었다(Nuclear Files 2023). 스티븐슨은 소련을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기술력을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으며, 초청된 전문가들은 소련이 독일의 자원과 기술자, 그리고 과학자들을 확보한다면 기술 발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6월 21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포츠담 회담에서 트루먼이 핵무기에 관하여 스탈린(Iosif Stalin)에게 발언할 수위가 논점으로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소련의 최고지도자에게 핵무기의 존재는 알리되, 만약 소련 측에서 핵무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본다면 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의했다. 소련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핵무기 개발 경쟁에서 소련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싶은 미 당국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임시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을 명시함과 동시에 소련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향후 전쟁의 전개에서 소련의 행보는 미국이 전쟁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일본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였다.

Ⅲ. 미국의 대(對)일본 관점

1. 선정된 표적

본래 미국의 원폭 개발은 독일이 원폭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에 대한 우려로 시작되었다. 2차 대전에 참전하여 독일을 적국으로 둔 미국이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독일의 핵개발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43년이 되자 독일의 패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독일은 소련과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후퇴했고, 연합군은 시칠리아를 점령했으며 이듬해인 1944년에는 노르망디 상륙에 성공하여 전세는 연합군 측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독일의 패망이 목전에 놓이게 되자 미국은 시선을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돌렸다. 독일 대신 일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핵무기의 표적은 독일이 아닌 일본으로 변경되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표적이 일본 본토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일본을 향해 원폭을 사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전쟁의 경과에 따라 표적의 성격은 달라졌다. 1943년 5월 5일 그로브스는 자신의 주재로 군사정책위원회(Military Policy Commitee)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위원회에는 임시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부시와 코난트를 포함해 해군 제독 퍼넬(William R. Purnell), 그리고 육군 스타이어(Wilhelm D. Styer) 소장이 참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군에 대한 핵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첫 핵무기가 남태평양 추크항(Harbor of Truk)에 위치한 일본 함대 집결지에 투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당시 미국은 과달카날 전투(1942.8. ~ 1943.2.)로 태평양 전역(戰域)에서 일본에 반격을 가하고 있었지

만, 그렇다고 일본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시기상조였다. 이에 태평양 지역에 진주하고 있던 일본 해군을 표적으로 삼아 첫 원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¹⁾

1945년 미국은 태평양 지역을 거의 장악하고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승기를 잡고 있었다. 이에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5월 9일 첫 임시위원회 회의에서 스티븐슨은 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그로브스가 4월 23일 전쟁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읽고 논의했다. 그로브스의 보고서는 핵무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스티븐슨을 통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로브스는 표적이 언제나 일본이었음을 언급했다. 더하여 보고서에서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핵무기를 신속히 개발하여 일본에 투하할 수 있다면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조속히 끝낼 수도 있었다(Nuclear Files 2023).

이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투하 지점을 선정하는 일이었다. 미국은 표적 선별을 위한 작업을 표적위원회(Target Committee)에 맡겼다. 1945년 4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한 표적위원회는 그로브스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군의 장군들과 과학계 인사들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표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표적의 선정은 두 번째 회의였던 5월 12일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지름 3마일 이상의 중요한 도시이며, 한 번의 공격으로 확실하게 파괴될 수 있고, 8월 이전까지 공격받지

1) 해당 회의에서는 독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공격이 더 긴요했기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말로이(Sean Malloy)에는 만약 미국이 원폭을 독일에 투하할 경우 기술력이 좋은 독일이 핵 관련 기술을 얻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않는 지역이라는 세 가지 선정 기준을 만족한 도시는 교토, 히로시마, 요코하마, 그리고 고쿠라였다. 여기서 교토와 히로시마는 가장 중요한 “AA” 표적으로, 요코하마와 고쿠라는 그 다음인 “A” 표적으로 분류되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표적위원회는 핵무기 사용에 있어 심리적 효과를 중시했다. 위원들은 선정한 네 개의 표적과 더불어 일본 천황이 거주하는 황거(皇居)까지도 표적 후보로 검토했는데, 이는 핵무기를 사용할 때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미국은 단 한 차례의 원폭 공격으로 일본의 전쟁 의지가 꺾이기를 바랐다. 이러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언급은 앞에서 보았듯 임시위원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2. 인도적 대우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일본을 재기할 수 없는 불구의 상태로 만들고자 함은 아니었다. 전쟁이 속히 종결되는 것과 일본을 파괴하는 것은 미국에게 별개의 문제였다. 미국은 전후 일본이 온전한 국가로 남기를 바랐다. 일례로 육군 작전과(Operations Department)에서 전략과 정책을 담당하던 링컨(George A. Lincoln)은 당시 육군 부참모총장이었던 헐(John E. Hull)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극동에서 ‘비중 있는 국가(a nation of some weight)’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맥클로이(John J. McCloy) 전쟁부 차관보 또한 본인의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한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일본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의 의중은 일본의 항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이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

구한 것은 맞으나, 일본의 항복이 열도 전체의 무력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1945년 6월 28일 임시위원회의 위원이었던 해리슨은 바드 차관에게 일본에 핵을 투하하기 전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5월 31일 임시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었는데, 그가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유는 ‘위대한 인도적 국가(a great humanitarian nation)’로서의 미국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임시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해리슨이 사전 경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그리고 미국의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태도는 천황제에 관한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해리슨의 보고서가 전달된 지 하루가 지난 6월 29일, 맥클로이 차관보는 스티븐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일본에 항복을 요구하는 포고문을 발표할 때 천황제의 유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이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천황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일본이 항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은 맥클로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포츠담 회담 중이었던 7월 24일 스티븐이 남긴 일기를 보면 그는 맥클로이가 이야기했던 내용, 곧 일본에 대한 사전 경고문에 천황제 유지를 포함하자는 것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비록 스티븐의 요구가 포츠담 선언문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전후에 미국이 천황제를 폐지하라고 종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혼(國魂)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7월 26일에 발표된 포츠담 선언에서도 미국은 일본에 대한 인도적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최후통첩’으로서 포고된 이 선언

문에는 전쟁 책임자에 대한 단죄, 영토 제한, 군대의 무장 해제 등 패전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내용들도 담겨 있지만, 미국을 필두로 한 연합국 측이 일본을 완전히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연합국은 선언문에서 일본을 노예화된 민족으로 전락시키거나 일본이라는 국가를 파괴할 의도가 없다는 문구를 명시했으며, 재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자국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1차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독일에 강제되었던 조건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기 하루 전이었던 8월 8일, 스티븐슨은 트루먼과의 담화에서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며 일본에 대한 처벌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이처럼 미국이 일본을 독일과 같이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로서 남기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방금 언급한 대로 1차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을 수 있다. 독일을 완전히 무력화하려 했던 프랑스의 의도는 독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들을 수용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치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항복의 수용선(受容線, redline)을 완화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이 항복의 자리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당시 독일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참상을 고려했을 수 있다. 연합국이 독일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보고되었다. 특히 소련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독일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더 가혹하게 대했다. 소련군은 동부 독일에서 민간인에 대한 약탈과 처형, 성폭력을 자행했으며 이는 수도 베를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불가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독일이 소련과 전쟁을 벌이며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에 소련의 복수심이

분출될 수는 있었지만, 소련의 공세적인 동진(東進)은 미국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소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소련에 대한 미국의 관점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IV. 미국의 대(對)소련 관점

1. 참전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인 1941년 4월 소련과 중립조약을 맺었다. 이에 소련은 미국과 같은 연합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미국의 적국인 일본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소련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일본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소련의 참전 문제는 1945년 2월 얄타에서 진행된 회담을 통해 확정되었고, 소련은 유럽에서의 전쟁이 마무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일전에 참전할 것을 약속했다.

트루먼 정부에서도 소련의 참전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다. 1945년 6월 18일, 트루먼과 스티븐스 장관, 맥클로이 차관보, 육·해군의 해군 장성 등 전쟁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향후 일본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논의가 오갔다. 규슈 상륙 작전의 전망과 타당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상륙전에서 소련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들은 오키나와 전투 이후 이미 희망을 잃은 일본에게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에 있어 ‘결정적인 행위(decisive action)’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트루먼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며

다가오는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으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6월 29일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서에서도 일본의 항복 시점과 소련의 참전이 관련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일본에 항복 요구를 전달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소련의 참전이 지목되었으며, 구체적인 시점을 소련의 참전 직후라고 명시했다. (불확실하지만 링크으로 추정되는) 보고서의 작성자는 비록 일본이 전쟁 초반 소련의 공세를 일시적으로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소련의 공격으로 점차 뒤로 밀리게 된다면 미국의 항복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더하여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폭격 작전(bombardment operations)’ 직전의 시점이 소련의 참전과 맞아떨어지면 좋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해당 문구 옆 공란에 수기로 “S1”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S1”은 당시 개발 중이었던 원폭을 지칭하던 용어였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이라는 국제정치적 요소와 더불어 원폭이라는 기술적 요소를 동시에 사용하여 일본을 잡고자 했다.

이처럼 미국은 소련의 참전이 전쟁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원폭과 함께 소련의 참전을 잘만 이용한다면 일본과의 전쟁을 단시간에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이는 소련이 미국의 기대 내에서 움직여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말이다. 미국은 소련을 완전히 신뢰할 만한 우군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기에, 소련발(發)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만주

미국이 소련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던 점은 만주 문제였다. 알타 회담에서 루스벨트는 소련이 일본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뤼순항(Port Arthur) 이용과 만주 철도 지배권 등 만주에 대한 소련의 이권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만주에는 일본이 세운 괴뢰정부인 만주국이 들어서 있었다. 만약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선언한다면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일본의 영역인 만주국으로 진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미국의 또 다른 우방이었던 장제스의 중국에 소련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함을 의미했다. 이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만주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었다.

1945년 6월 4일, 헐 육군 부참모총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서 링컨은 스티븐슨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적었다.

만약 우리가 극동(極東)에서 선언된 전쟁 목적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일본을 완전히 파괴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극동에 존재하는,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를 제거하게 되며, 결국 러시아가 해당 지역을 지배하도록 한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앞서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다소 인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일본에 대한 유화적 태도와 소련에 대한 경계가 연결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스티븐슨의 생각에 대해 링컨은 이렇게 의견을 덧붙였다.

우리는 러시아를 국가가 경제체제를 독점하는 국가이자, 의문의 여지 없이 유럽에서 가장 지배적인 국가가 되도록 했다. ... 우리는 러시아가 병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주와 중국의 거대한 지역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쉽사리 차지하도록 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미국은 전쟁이 끝난 유럽에서 이미 지배적인 세력으로 발돋움한 소련이 극동에서까지 자국의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기에 보고서 말미에는 일본의 항복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때 만주에 대한 이권을 제공하겠다는 알타 회담에서의 약속과 더불어 ‘소련의 욕망(Russian desires)’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소련이 만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긴요했기 때문이다.

트루먼의 미국은 소련이 만주에 대한 이권을 차지하는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6월 6일 스티븐슨은 대통령과의 담화가 담긴 보고서를 남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루먼은 이미 번즈를 통해 원폭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5월 31일 임시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였다. 트루먼은 뤼순과 다롄을 제외한 만주를 중국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스탈린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지만, 스티븐슨은 약속대로 소련이 만주에서 철도 통제권의 절반을 가지게 된다면 이곳에서 소련의 우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5월 31일 임시위원회 회의에서 소련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티븐슨은 소련과의 협력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만주에 대한 소련의 이권 차지는 군에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6월 14일 마셜 참모총장은 전쟁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만주

를 차지하지 않는 한, 만주를 중국에 반환하는 일이 소련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함을 적시했다. 그는 만주에서 소련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말하며 미국의 만주 점령을 위한 ‘군사 작전(military operations)’을 언급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만주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가 아직 불필요하다고 답하기는 했으나, 마셜의 보고는 미국이 만주에서 만분지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련과의 대결까지도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은 소련이 만주에서 자국의 세력 확대를 노리는 것을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만약 소련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대일전에 참전한다면 미국으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소련이 알타 회담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지 않는지 소련의 행보를 계속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소련이 선을 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했다.

3. 문호개방정책

소련의 만주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이라는 패를 제시했다. 문호개방정책은 1899년과 1900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존 헤이(John Hay)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對)중국 정책으로, 2차 대전까지 미국이 중국을 대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정책이었다.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필리핀을 얻고 중국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청일전쟁에서 청(淸)이 패배한 후 가속화되었다.

이에 1899년 9월 헤이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그리고 일본에 “문호개방서신(Open Door Note)”을 보내 중국에서 활동하는 상

인들이 국적을 막론하고 최혜국 대우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한 무역 기회를 보장받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듬해인 1900년 청 왕조를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는 “부청멸양(扶淸滅洋)” 의화단 운동이 발생하여 각국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자, 헤이는 진압군을 파견한 국가들에 두 번째 서신을 보내 중국의 영토적, 행정적 권한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은 1922년 워싱턴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이 9개국 조약(Nine Power Treaty)을 체결하며 재확인되었다.

문호개방정책은 중국에 대한 이권을 노리는 미국이 특정 국가가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세를 키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었다. 만약 어떤 국가가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이는 미국이 설정한 허용선(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것이었다. 문호개방서신의 수신국이자 9개국 조약의 당사자였던 일본은 이미 1931년 만주를 침공하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 시작했으며, 1941년에는 미국에 정면으로 맞섰다. 일본에 의해 자국의 대중국정책이 일그러진 미국은 또 다른 도전자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일본에 이어 만주를 노리는 소련의 태도는 미국이 좌시할 수 없었다.

포츠담 회담이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던 1945년 7월 16일, 스티븐슨은 본인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번즈 국무장관과 공유한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은 일본과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회담의 당사국이었던 소련에 관하여 스티븐슨은 먼저 일본이 소련과 단독으로 강화 협상에 임할 것을 대비해 일본에 대한 최후통첩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미국은 일본의 암호문을 모두 해독하여 일본이 소련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보고서에서 스티븐슨은 소련과 2월에 맺은 얄타 협정, 그리고 포츠담

에서 소련과 합의할 사항이 ‘우리의 전통적인 대중국 정책(our traditional policy toward China)’과 합치하는 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대중국 정책은 ‘문호개방정책과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 인정(the Open Door Policy and the recognition of Chinese sovereignty over Manchuria)’이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이 소련에 요구한 것은 간명했다. 곧 소련이 만주를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소련의 의도를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미국이기에 포츠담에서 미국이 소련에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알타보다 넓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스티븐슨의 말은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가 알타 협정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소련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미국은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했다.

회담에 들어가기 전 미국은 만주에 관하여 소련에 제시할 내용을 재확인했다. 스티븐슨은 알타 협정에 따라 소련이 뤼순을 제한된 기간에 군사기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다렌 혹은 만주에 있는 다른 상업항구를 통해 무역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그 어떠한 특권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해당 부분은 보고서의 본문에서 유일하게 밑줄이 쳐져 있는 대목으로, 이는 만주에 대한 소련의 이권 침탈을 미국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은 소련이 넘지 말아야 할 확고한 허용선을 설정했다. 만약 소련이 미국이 제시한 허용선을 넘는다면 미국은 소련의 남진(南進)을 막기 위해 행동할 수도 있었다. 이제 관건은 소련이 포츠담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오는지였다.

V. 포츠담부터 나가사키까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된 포츠담 회담은 2차 대전 중 연합국 정상들이 공식적으로 만난 마지막 자리였다. 회담에서는 이미 패망한 독일과 전후 유럽 재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논의되었고, 일본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공동선언(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회담을 통해 일본과의 전쟁을 순조롭게 끝내기를 원했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소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좁혀지지 않은 미소 양국의 거리는 이후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폭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나가사키 원폭에 대한 실마리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1. 소련과의 결별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이 참여한 회담에서 발표된 포츠담 선언은 7월 26일에 나왔다. 그런데 선언문에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화민국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소련이 선언에서 빠진 것이다. 소련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일본과 중립 조약을 맺었기에 일본에 대한 전쟁 선포가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알타 회담에서 소련은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난 지 3개월 이내에 대일전에 참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기에 독일의 항복선언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련이 일본에 대한 전쟁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 입장에서 소련의 진의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회담을 통해 미국과 소련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회담 내내 트루먼과 그의 참모들은 소련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을 여러

번 언급하며 미소 양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스팀슨은 트루먼과 함께 포츠담으로 건너가 트루먼을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회담 중 남긴 일기에서는 소련과의 대담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회담 이전부터 소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했던 그는 회담 중에도 일관되게 소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회담 첫날이었던 7월 17일 아침 스팀슨은 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수행했던 번즈에게 문호개방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문호개방정책이 스탈린이 만주에서의 상업적 권리를 노리는 것을 저지하는 좋은 명분이 되리라고 생각했으며, 소련에게 그러한 독점적 권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스팀슨의 생각은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었고, 같은 날 저녁 트루먼은 당일 스탈린과의 회의에서 그에게 문호개방정책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못 박았다(clinch)’고 스팀슨에게 말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하지만 스탈린은 트루먼의 엄포에도 자신의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번즈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월터 브라운(Walter Brown)이 남긴 일기에 따르면, 소련은 다렌과 만주철도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를 원했으며 이를 번즈는 우려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특히 다렌 문제가 미국으로서는 골치가 아팠다. 소련은 다렌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는데, 이는 스팀슨이 주장했던 미국의 허용선과 충돌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스팀슨은 19일 미국과 소련의 정치지도자들이 협력에 관해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름을 언급하며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일기에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소련을 대비하여 소련의 정치체제를 비난함과 동시에 핵무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처럼 표현의 자유와 다른 모든 면에서의 자유 위에 세워진 국가가, 표현이 엄격히 제한되고 정부가 압제적인 비밀경찰을 사용하는 국가와 영원히 잘 지낼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매우 중요하며, S-1의 개발이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워싱턴에서 이 주제로 모이고 해당 주제에 대해 러시아와 관련하여 개방된 소통을 시작했던 우리의 위원회가 진공 상태에서 생각되고 있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여기서 말한 ‘위원회’에서 핵무기와 소련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스티븐슨이 말한 위원회는 임시위원회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5월 31일 회의에서 임시위원회 위원들은 소련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소련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이 나왔다.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과 직접 대면한 이후 스티븐슨은 자신들의 논의가 ‘진공 상태’와 같았다고 말했다. 이는 소련과의 입장 차가 예상보다 크며 미국이 소련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과연 소련과 협력이 일본과의 전쟁을 끝내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브라운의 일기를 보면 7월 20일 번즈가 소련의 ‘허를 찔러야(outmaneuver)’ 한다고 결심했다는 대목이 있다. 그는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가 회담 중에 나오기를 바랐으나, 소련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줄어들지 않자 소련의 참전 전에 일본이 항복할 것 같다는 말을 쑹쯔원(宋子文) 중화민국 행정원장에게 전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소련을 압도할 수

있는 수로 일본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 있는 발언이었다.

그렇다면 번즈는 어떻게 소련의 ‘허를 찌를’ 수 있다고 판단했는가? 답은 원폭이었다. 7월 18일 번즈는 원폭 사용이 2주 후에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틀 전인 16일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에 그의 말은 사실이었고, 이 성공 소식은 21일 트루먼에게도 전달되었다. 이제 미국은 소련을 배제하고 일본과의 전쟁을 단독으로 끝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군에서도 소련과의 협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스티븐슨에 따르면 23일 마셜 참모총장이 포츠담에 도착했다. 당일 아침에 트루먼은 대일전 수행 시 소련의 도움이 필요한지 의견을 구하고자 했고, 스티븐슨은 마셜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애초 미국은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한다면 만주에서 일본군을 ‘방해 해주기(holding up)’를 바랐다. 하지만 만주에 대한 소련의 욕심이 확고하다고 보았기에 미국은 소련과의 군사적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셜은 스티븐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우리가 러시아 없이 전쟁에서 앞서가고 일본이 우리의 조건에 따라 항복하도록 강요하더라도, 이것이 러시아가 어떻게든 만주로 진격하고 만주를 공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들이 항복 조건에서 원했던 것을 사실상 허용하게 됩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마셜의 의견은 이튿날인 24일 스티븐슨을 통해 트루먼에게 전달되었다. 그의 보고를 대신 전해 들은 트루먼은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한

표적 중 하나를 삭제하자는 스티븐스의 의견에 동감했다.

이처럼 스티븐스가 앞서 살펴보았듯 일본에 대한 인도적 태도를 보인 것은 소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일본과의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 함은 분명했으나, 극동에서 소련과의 협력을 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에 일본에 가해지는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스는 트루먼에게 말한 표적 삭제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자비한 행위로 인해 야기될 비통함이 긴 전후(戰後) 시기에 일본이 차라리 러시아와 화해할지언정, 우리가 일본과 화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우리의 정책이 요구하는 것, 곧 러시아가 만주를 침공할 것에 대비하여 일본을 미국에 호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스티븐스는 만약 미국이 전쟁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일본에 원폭을 다량으로 투하한다면 전쟁 이후 일본이 미국보다 소련과 가까워져 극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다. 그리고 일본과 소련 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소련이 남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되 소련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결국 7월 25일, 참모들로부터 원폭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온 트루먼은 첫 번째 폭탄의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 전쟁성을 통해 올라온 계획에 따르면 첫 공격은 8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첫 폭격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원폭이 사용될 예정이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던 무기였지만 트루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는 본인의 일기에서 결정을 내린 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폭탄(원자폭탄)을 발견했다. 이는 노아와 그의 방주 이후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계곡의 시대에 예언된 불의 파괴일지도 모른다. ... 나는 전쟁부 장관인 스티븐슨에게 군사적 목표와 군인, 그리고 해군이 표적이지 여성과 아이가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비록 일본놈들이 야만인이고, 가차 없으며 무자비하고 미쳐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안녕을 위하는 세계의 지도자인 우리가 이 끔찍한 폭탄을 옛 수도(교토)나 새로운 수도(도쿄)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일본에 대한 트루먼의 동정심에는 원폭이 인류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만약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 발의 핵무기를 더 떨어뜨려야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는데, 만약 일본이 미국에 원한을 품고 소련과의 강화 협상에 임한다면 미국의 수는 도덕과 권력 모두를 잃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트루먼은 그러한 순간이 오기를 바라지 않았다.

26일 포츠담 선언은 소련이 제외된 채 선언되었다. 회담장에서 소련이 보인 태도나 요구한 내용은 미국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웠기에, 미국은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과의 결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소련과의 협력이 어렵다고 본 미국은 원폭을 통해 전

쟁을 끝냄으로써 미국인의 추가적인 희생을 방지하고 소련의 ‘흑심’을 저지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항복이 소련의 선전포고보다 앞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만약 일본이 항복하지 않은 채 소련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만주가 소련에 넘어갈 것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게 일본과의 전쟁 종결 문제는 소련의 만주 진출 문제와 서로 엮여 있었다.

2. 소련의 참전과 나가사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했다. 트루먼은 라디오를 통한 대국민담화에서 일본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 원폭을 투하했으며, 만약 일본이 포츠담 선언에 따라 항복하지 않으면 공중에서 ‘파멸의 비(a rain of ruin)’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Atomic Heritage Foundation 2022). 그만큼 미국은 원폭 투하가 일본의 항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다. 일본 군부는 원폭의 피해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며 항복 선언을 미루었다. 이대로라면 미국은 경고한 대로 추가적인 핵 공격을 감행해야 했다. 이제 관건은 두 번째 원폭을 떨어뜨릴 날을 언제로 할지였다.

그런데 모스크바 기준으로 8월 8일 17시, 소련이 일본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으로서는 당혹스러웠다. 왜냐하면 소련이 예상했던 참전 시점보다 더 빨리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포츠담 회담에서 스탈린은 소련군을 8월 15일 전에 움직이기 어렵다고 트루먼에게 말했다. 이에 소련의 참전은 8월 15일 혹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이 일주일이나 앞서 대일전에 뛰어든 것이다.

소련의 이른 참전은 소련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적절한 참전 시점을 기다렸음을 보여준다. 주소련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해리먼(William A. Harriman)을 옆에서 보좌한 로버트 메이클레존(Robert P. Meiklejohn)이 남긴 일기에 따르면 스탈린은 5월 28일 해리먼에게 소련이 8월 8일에는 군을 움직일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이는 포츠담에서 스탈린이 언급한 날짜보다 1주일 빨랐으며 소련이 선전포고를 한 바로 그날이었다.

스탈린이 무슨 이유로 해리먼과 트루먼에게 다른 말을 했는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다는 사실을 안 소련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어려웠다. 미국에 의해 본토에 큰 타격을 받은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까지도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탈린은 그전까지 확정하지 않았던 참전 날짜를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튿날인 8월 7일에 확정했다. 그리고 참전이 선포된 지 하루가 지난 8월 9일에 소련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고려할 때, 소련은 이미 진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음이 분명하다.

미국은 일본이 원폭을 맞았음에도 항복하지 않았으며, 소련이 일본과 전쟁에 들어간 이중고에 빠졌다. 일본 본토에 상륙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건의가 군 수뇌부에서 나와 대통령에게 전달되기도 했으며, 외교계에서는 미국의 원폭 투하가 소련의 전쟁 참여를 앞당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소련 양국 모두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 했다. 전쟁을 매듭짓지 않으면 일본과의 전투에서 더 많은 자국민이 희생되며 소련의 진격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전후 일본이 소련에 가까워지는 것도 막아야 했기에, 여러 조건을 고려하며 최선의 수를 찾아야 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만족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원폭이 투하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면서도 일본의 존망을 흔들지 않을 장소에 원폭을 사용해야 했다. 히로시마 다음으로 선정된 표적은 고쿠라였다. 중공업이 발달했으며 일본 서부인 규슈에 위치하여 미군의 폭격을 받지 않은 고쿠라를 향해 8월 9일, B-29 폭격기는 플루토늄 폭탄을 실은 채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악천후로 인해 원폭은 고쿠라보다 남쪽에 위치한 나가사키에 떨어졌다. 규모 면에서 고쿠라에 비해 작긴 하나 나가사키도 규슈에서 큰 도시였던 만큼 일본이 받았던 충격은 상당했다.

우연적 요소가 덧붙여졌지만, 미국은 나가사키 원폭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이 항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본 현지 시간으로 8월 10일 오전 2시 30분, 히로히토 천황은 지금 일본의 역량으로는 연합국을 상대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전쟁을 더는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미국에도 전해져 같은 날 트루먼이 자리한 미국의 내각 회의에서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겠다는 일본의 서신이 낭독되었다. 이 자리에서 트루먼은 원폭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폭탄으로 인해 이미 수십만의 목숨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끔찍하다(horrible)’고 밝혔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하지만 미국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지는 못했다. 일본과의 전쟁을 매듭짓는 것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소련의 진격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스크바 기준 8월 9일 0시를 기해 소련은 만주의 세 방향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트랜스바이칼 전선(Transbaikal Front)에서는 소련군이 외몽골을 거쳐 서쪽에서, 제1극동 전선(1st Far East Front)과 제2극동 전선(2nd Far East Front)에서는 각각 동쪽과 북쪽에서 만주로 진입했다.

미국은 소련이 더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10일 미국의 내각 회의에서 트루먼은 “소련이 만주로 너무 깊숙이 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슨도 소련의 진격을 우려하며 종전이 빠르게 오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소련이 이 틈을 타 만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는 소련의 진격이 만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만주를 이미 침공하기 시작한 러시아가 일본 본토에 다다르기 전에 항복을 최대한 빨리 받아내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러시아가 본토를 점령하고 통치할 실질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본토를 우리 손에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이미 만주 곳곳으로 나아가고 있던 소련의 계획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미국은 쉽사리 판단할 수 없었다. 스티븐슨의 우려처럼 소련은 원한다면 일본 본토까지도 점령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이 소련의 진격을 멈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소련의 만주 공세는 8월 15일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뒤에도 계속되다가 20일이 되어서야 끝났다. 나가사키 원폭에서 미국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원폭 투하 전까지 미국의 의도는 일본의 항복과 소련의 만주 진공 억제체를 하나로 엮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두 사건은 상호 독립이었다. 마셜의 말처럼 소련의 만주 진격은 미국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Ⅵ. 나가며

정책결정자들이 남긴 기록을 검토하며 나가사키 원폭의 실마리를 추적했다.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분명 국제정치적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두 번째 원폭을 사용하기 전 일본과 소련을 모두 고려하며 핵무기의 사용을 결정했다. 근본적인 동기는 전쟁의 신속한 종결이었으나, 양국을 향한 미국의 동기는 각각 달랐다. 일본에 대해서는 적국과의 전쟁에서 무고한 미국인의 희생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다. 소련에 대해서는 극동으로의 진출을 막고자 했던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둘 중 어느 요소가 미국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요인은 서로 얽혀 있었다.

미국에게 나가사키 원폭은 반쪽짜리 성공이자, 반쪽짜리 실패였다. 일본에 대한 수는 먹혀들었지만 소련에 대한 수는 그렇지 않았다. 소련은 두 번째 원폭으로부터 항복선언일까지의 기간에도 만주를 향해 진격을 멈추지 않았다. 의미 없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만약 미국이 (반드시 원폭이 아니더라도) 일본에 대해 추가적인 공격을 감행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을 더 빨리 끌어내고 소련의 진출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일본이 항복 의사를 타진한 상황에서 또다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명분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우려한 대로 일본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었다. 일본이 미국이 아닌 소련의 편에 서게 된다면 미국은 만주를 지키려다가 일본 까지도 빼앗길 수 있었다. 또한 거듭 말한 것처럼 미국의 군사적 조

치가 소련의 진군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소련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소련 자신 말고는 없었다.

나가사키 원폭을 기점으로 미국과 소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세계 무대에 우뚝 선 두 개의 뿔이 충돌 직전에 있었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한 세기 전 《아메리카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예견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이는 두 민족이 있다. 바로 러시아인들과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이다. ... 이 두 민족은 갑자기 선두 대열에 끼어들었으며, 세계가 거의 동시에 이들의 출현과 위대성을 알아차렸다. ... 이 두 나라의 출발점은 서로 다르며 가는 길도 다르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언젠가 세상 반쪽의 운명을 각자의 손에 넣도록 하늘의 계시를 받은 듯하다(Tocqueville 2020, 707-708).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던 두 나라는 결국 동아시아에서, 만주에서, 일본에서 만났다. 국제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막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에, 나가사키가 있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차 자료

- Atomic Herritage Foundation. 2022. “Truman Statement on Hiroshima”.
<https://ahf.nuclearmuseum.org/ahf/key-documents/truman-statement-hiroshima/> (검색일: 2024. 12. 26).
- National Archives. The President's News Conference.
<https://www.trumanlibrary.gov/library/public-papers/94/presidents-news-conference> (검색일: 2024. 12. 19).
- National Security Archive. 2020. “The Atomic Bomb and the End of World War II”.
<https://nsarchive.gwu.edu/briefing-book/nuclear-vault/2020-08-04/atomic-bomb-end-world-war-ii> (검색일: 2024. 09. 14).
- Nuclear Files. 2023. “Interim Committee”.
<https://web.archive.org/web/20160324162934/http://www.nuclearfiles.org/menu/key-issues/nuclear-weapons/history/pre-cold-war/interim-committee/index.htm> (검색일: 2024. 10. 05).
- Tocqueville, Alexis de. 2018.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이용재 역. 파주: 아카넷.

2차 자료

- Alperovitz, Gar. 1965. *Atomic Diplomacy: Hiroshima and Potsdam*.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Alperovitz, Gar. 1995. *The Decision to Use the Atomic Bomb*. New York: Alfred A. Knopf.
- Asada, Sadao. 1998. “The Shock of the Atomic Bomb and Japan’s Decision to Surrender: A Reconsideration”. *Pacific Historical Review* 67, 4: 477–512.
- Bix, Herbert P. 2005. “Japan’s Surrender Decision and the Monarchy: Staying the Course in an Unwinnable War”.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3, 7.
- Cummings, Bruce. 1999.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at the End of the Centu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Frank, Richard B. 1999. *Downfall: The End of the Imperial Japanese Empire*. New York: Random House.
- Hasegawa, Tsuyoshi. 2005. *Racing the Enemy: Stalin, Truman, and the Surrender of Japan*. Cambridge: Belknap Press.
- Maddox, Robert J. 1995. “The Biggest Decision: Why We Had to Drop the Atomic Bomb”. *American Heritage* 46, 3.
<https://www.americanheritage.com/biggest-decision-why-we-had-drop-atomic-bomb> (검색일: 2024. 10. 15).
- Sherwin, Martin. 1975. *A World Destroyed: The Atomic Bomb and the Grand Alliance*. New York: Random House Inc.

국가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는가?
핵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상이한 인식을 중심으로
(미국) 앨버커키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
(일본)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 나가사키 평화 공원

고하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외관계 전공 석사 졸업

I. 사랑방 23기를 마무리하며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2024년 가을 학기 사랑방 23기는 2024년 8월 29일(목) 예비모임을 시작으로, 2024년 9월 6일(금)-11월 29일(금)의 13주 수업과 2025년 1월 7일(화)-9일(목) 2박 3일의 일본 답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EAI 사랑방 23기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1주차에서 13주차에 이르기까지 하영선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토픽의 역사적·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구의 IR과 IRT vs 비서구의 IR과 IRT, 동아시아의 IR 그리고 한국의 IR에 대해 냉전-탈냉전-신냉전, 역사 vs 과학, 보편성 vs 특수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교수님의 제안에 따라 답사보고서와 더불어 “북핵”이라는 관심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첫째, 2024년 7월 여름 방학에 방문한 미국 앨버커키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과 둘째, 2025년 1월 겨울 방학에 방문한 일본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대해 비교하는 기행 성격의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앨버커키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과 일본의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및 평화공원은 각각 핵무기와 그 사용에 대한 다른 관점을 토대로 핵무기의 역사와 그 피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박물관은 핵 과학과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의 자료관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끼친 피해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평화공원은 평화와 핵무기 폐기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류 역사의 발전과 관련하여 핵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미국이 바라보는 핵에 대한 인식과 일본이 바라보는 핵에 대한 인식은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현재 2025년 시점에서 양국의 핵 정책과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앨버커키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과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및 평화공원이라는 두 개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Ⅱ. 미국 앨버커키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 : 발전의 역사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위치한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National Museum of Nuclear Science & History)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핵 과학과 원자력 기

술의 발전에 관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밝은 분위기를 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박물관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맨해튼 프로젝트의 중심지이자 미국이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장소였던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곳으로 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유용했다.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은 주로 미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 및 핵 실험의 과학적, 기술적 측면, 핵 과학의 발전과 원자력 기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었고, 핵무기와 그 영향에 대한 교육적 측면과 핵무기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2024년 7월 방문 당시 많은 미국의 학생들이 박물관에 단체 방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에 대한 설명의 전시 형식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핵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신기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박물관은 핵 과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개발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시를 제공했는데, 미국 맨해튼 프로젝트에 따른 핵무기 개발의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핵의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오펜하이머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것 같다.

둘째, 박물관은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와의 근접성을 토대로 맨해튼 프로젝트와 핵무기 개발연구소에서 이루어진 핵 실험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와 과학적 발견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미국이 초기에 핵무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켰는지 핵 과학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시청각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었다.

셋째, 박물관은 핵의 군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핵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소나 의료용 방사선 등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핵이 군사적 용도가 아닌 평화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핵무기의 위협성에 대해 동시에 설명하여 핵 과학의 양면성(복합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박물관은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핵의 파괴적인 힘과 그로 인한 국제적, 정치적, 도덕적 논란 등의 위협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었다. 일본에 대한 미국 핵무기의 사용, 쿠바 미사일 위기 등에 대한 전시를 통해 핵의 영향과 파급력에 대해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다룬 내용이 있어서 현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박물관에 방문해서 느낀 점은 미국의 핵 과학의 발전, 핵무기 개발의 역사, 핵에너지의 평화적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핵 기술에 대한 전시에 대해 직접 본 후, 현지에서 영상물 시청, 퀴즈 맞추기 게임, 기타 체험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미국이 핵이라는 토픽에 있어 “발전의 역사”의 관점에서 핵 과학 및 기술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다.

Ⅲ. 일본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 평화공원 : 피해와 아픔의 역사

일본 나가사키에 위치한 원폭 자료관(Nagasaki Atomic Bomb Museum)과 평화공원(Nagasaki Peace Park)은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를 기억하고 핵무기의 참혹한 피해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소로서, 엄숙한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미국 박물관과는 대조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우선적으로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를 중심으로 한 장소로, 핵무기 피해에 대한 증언, 원자폭탄 투하가 일본인에게 준 영향과 관련 역사적 사실, 핵무기 사용으로 인간적 고통과 피해, 평화의 중요성과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 원자폭탄 투하의 결과와 일본에서의 회복, 그리고 일본 내 평화운동에 대한 이야기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특히, 박물관은 그 당시 원폭으로 인한 당시의 사진 및 유물,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실제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핵무기의 파괴적인 영향을 직접 보고 나니 참혹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유리병과 사람의 뼈가 붙어있는 전시물은 충격적이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자료관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가 이루어진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단계와 관련된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둘째, 자료관은 원폭이 투하된 후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전시하고 폭발의 순간과 그로 인한 인간적인 고통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망자 및 피해를 겪은 생존자 등의 다양하고 자세한 인터뷰, 사진, 증언이 전시되어 있었다. 셋째, 자료관은 원폭 투하가 일으킨 도덕적, 인도적 논란과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나가사키 평화공원은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점 근처에 위치한 공원으로 일본의 원폭 피해 기념과 반핵 평화 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공원은 원폭의 폭심지, 평화의 조형물 및 기념비, 평화의 종 등의 건축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핵무기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료관과 평화공원에 방문해서 느낀 점은 일본의 원폭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핵무기 사용의 피해와 여파를 기록하고 설명하는 전시물들과 핵무기 없는 세상과 평화를 기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핵이라는 토픽에 있어서 “피해와 아픔의 역사”의 관점에서 핵무기 사용의 비극적 결과로 인해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자료관은 정보 제공과 교육에 목적이 있고 평화공원은 기념의 공간으로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 상호보완적인 장소라고 생각되었다.

IV.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미국과 일본의 핵에 대한 인식 분석

북한학을 토대로 “북핵” 관련 이슈를 연구하길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미국의 앨버커키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과 일본의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및 평화공원이라는 장소는 핵에 대한 미국과 일본 양국의 서로 다른 인식을 토대로 정보를 습득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 원폭이 떨어졌던 1945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서로

달랐는지, 과거 1945년이 아닌 2025년 현재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국제관계 및 외교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다.

2024년 7월 여름 방학에 방문한 미국과 2025년 1월 겨울 방학에 방문한 일본을 통해서 핵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어떻게 상이한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선, 미국 앨버커키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은 핵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 중에서도 핵무기의 개발과 실험, 그 과정에서의 과학적 발견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기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박물관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원자력 발전,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전시물이 많았다. 반면, 일본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은 핵무기 사용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1945년 나가사키 원폭의 역사적 사건과 그것이 미친 인간적 고통과 피해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자료관은 원폭 투하로 인한 일본 피해의 참혹함과 피해자의 증언, 사진, 물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물이 많았다. 아울러,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은 원폭 피해자들을 기리는 것을 핵심으로 일본 내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평화공원은 기념 조각상, 평화의 상징물들이 중심이 되는 장소로, 직접적 전시물보다는 기억과 기념을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느껴졌다. 또한, 미국 앨버커키 박물관은 미국의 핵 개발 역사와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시작되는 반면, 일본 나가사키 자료관과 평화공원은 일본의 핵무기 피해와 그로 인한 평화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는가? 미국은 핵에 대해 “발전의 역사”를, 일본은 핵에 대해 “피해와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은 박물관, 자료관, 평화공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핵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1945년 일본 식민지로서의 한국은 핵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상황을 보면, 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핵무기의 사용이 있었던 상황과 2025년의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동맹 강화를 추구하는 상황이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 과거 1945년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며 일본에 큰 피해를 주었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큰 고통을 겪었다.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8월 6일)와 나가사키(8월 9일) 두 도시를 원자폭탄으로 공격하였고, 일본은 핵폭탄 투하 이후 원폭의 피해자로서 고통과 상처를 지속적으로 경험했다. 또한 일본은 일제 강점기 한국에 대해 인권 침해, 강제 노동,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고통을 주며 착취를 감행하였으며, 한국은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후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지속적인 배상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즉, 한미일 3국은 각자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상이한 가해자(Perpetrator)와 피해자(Victim)의 역할을 경험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외교적 긴장과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현재-미래의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미국 앨버커키 국립 원자력 과학 역사 박물관〉 방문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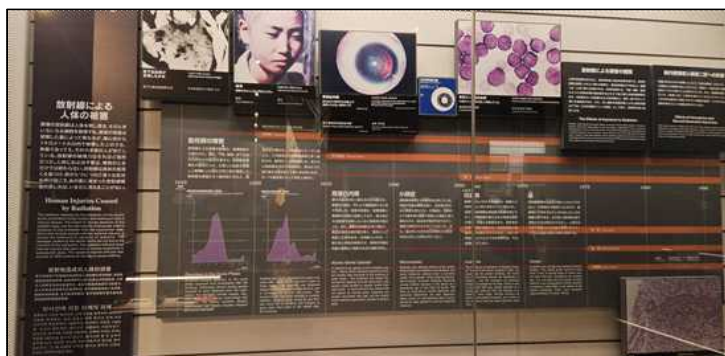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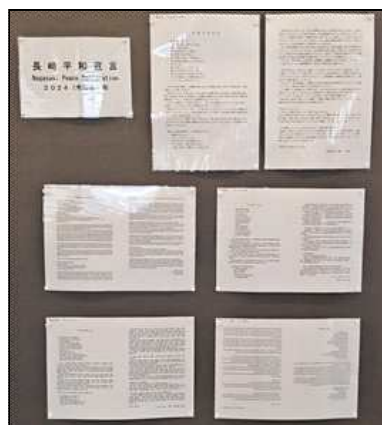




〈일본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 평화공원〉 방문 현장 사진









〈 사랑방 23기 일본 규슈 답사 단체사진 〉

참여자 : 하영선, 박한수, 고하은, 이원주, 이해린, 정명현 (6인)





















〈 다음 기수를 위한 사랑방 23기의 답사 준비 꿀팁 〉

● 뱅/버스 대절 관련 팁

- 3일 일정 모두를 뱅 혹은 버스를 대절하여 움직이게 되면 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일차와 3일차만 차량을 대절하여 움직이는 것이 경제적인 수 있습니다. (답사 전 구성원들과 비용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뱅 대절 업체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nd180.com/korean_japan_bus/%eb%8c%80%ed%98%95%eb%b0%b4/.

● 나가사키행 버스 예약 관련 팁

- 뱅/버스 대절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후쿠오카 국제공항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교통편은 고속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답사 인원이 적을 경우 첫날 일정은 나가사키까지 고속버스로 이동한 뒤 시내에서 택시 또는 전차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고속버스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ghwaybus.com/gp/index>. 다만 언어를 일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설정하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버스 노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일본어로 표기되는 화면에서 예약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답사 전에는 12시 2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예약하여 이동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오카 공항에서 입국 수속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11시 7분발 버스로 승차권을 교환했습니다. 예약할 때는 12시 2분발 버스를 선택하되, 공항 도착 후 시간이 여유롭다

면 승차권을 교환하여 나가사키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그 외 답사 관련 팁

- 규슈 도자기문화관 화장실이 아름다우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규슈 국립박물관에서 대학생 할인을 받으려면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답사 시 학생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의 규슈는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일본의 경우 1월 1일부터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까지 신년 연휴로 명소나 음식점이 휴업하기도 합니다. 일정 확정 시 이 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같이 사진을 많이 찍으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